

2005년 8월
박사학위 논문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송 은 미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youth cultural
festival on development of self-identity and social
network quotient*

2005년 6월

조선대학교대학원

체육학과

송은미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정 명 수

이 논문을 이학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송 은 미

송은미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 응 식 인

위원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곽 형 식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노 형 철 인

위원 위덕대학교 교수 박 진 기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 명 수 인

2005년 6월

조 선 대 학 교 대 학 원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의의 및 목적	4
3. 연구가설	4
4. 연구내용	5
1) 축제참가 할 때 갖는 감정적 견해	5
2) 대인과 상호작용 할 때 갖는 감정적 견해	5
3) 자아정체감	6
4) 공존지수	6
5.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 발달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계구조모형	8
1) 외생 관측 변수	10
2) 내생 관측 변수	11
3) 외생 잠재 변수	14
4) 내생 잠재 변수	14
6. 연구의 제한점	15
II. 이론적 배경	16
1. 축제의 의미	16
2. 청소년 문화축제	18
1) 한국 청소년문화의 특징	18
2) 청소년 문화축제의 의미와 가치	20
3) 한국의 청소년 문화축제의 현황	21
4) 현대 청소년의 여가 문화	21
3. 청소년기의 발달	23
1) 청소년기의 발달특성	23
(1) 청소년기의 정의와 발달 특성	23
(2) 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문제행동	25

목 차

(3)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특성과 심리	26
(4)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 특성과 심리	27
(5)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 특성과 심리	28
(6)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과 자아정체감 확립	29
4. 자아 정체성	30
1) 자아정체성의 정의	30
2) Erikson 의 사회심리이론	33
3) 자아정체성 발달론	34
5. 여가활동과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36
1) 여가활동과 발달적 상황	38
2) 자아정체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40
6. 공존지수와 사회공존지수	42
1) 공존지수	42
2) 사회공존지수	43
III. 연구방법	45
1. 연구대상 및 표집	45
2. 연구절차	45
1) 연구일정	45
2) 연구절차	45
3. 조사도구	47
1) 설문지의 구성	47
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47
(1) 탐색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 검증	48
(2) 설문지의 신뢰도	52
(3) LISREL을 이용한 확인요인분석	55
(4)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56
4. 자료처리 및 통계방법	58

목 차

IV. 결과 및 논의	59
1.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검증	59
2.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사회공존지수의 차이검증	61
3.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견해가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64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64
2) 구조모형의 경로 검증	69
3)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1
(1) 자기개발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1
(2) 자신감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2
(3) 긴장완화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3
(4) 의무감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4
4)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5
(1) 타인의식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5
(2) 일원감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6
(3) 독립감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6
V. 결론 및 제언	80
1. 결론	80
2. 제언	81
참고문헌	82
부록	90
국문초록	96
영문초록	98

표 목 차

표 1. 자아정체성 성취수준의 유형	34
표 2. 설문지의 구성 지표 및 내용	47
표 3. 축제참가시의 감정적 견해에 대한 직각회전요인분석	48
표 4.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는 감정적 견해에 대한 직각회전요인분석	49
표 5. 자아정체성에 대한 직각회전요인분석	50
표 6. 공존지수에 대한 직각회전요인분석	51
표 7. 구성요인의 신뢰도 검증	53
표 8. 확인요인분석	55
표 9.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	57
표 10.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검증	59
표 11.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사회공존지수의 차이검증	61
표 12. 구조모형에 대한 전반적 지수	63
표 13. 외생 측정변인의 표준치와 측정 오차	65
표 14. 내생 측정변인의 표준치와 측정오차	67
표 15. 구조모형의 γ 및 β 경로 추정치	69

그림 목 차

그림 1. 관계구조모형	7
그림 2. 청소년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의 관계 구조모형	9
그림 3. Erikson의 사회·심리적 발달 8단계	32
그림 4. 여가의 강도(<i>Intensity of leisure experience</i>)	38
그림 5. 청소년 자유시간에 있어 활동, 장소, 사회적 문맥의 세가지 주요 차원	39
그림 6. 연구절차	46
그림 7. 통제참여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 검증	60
그림 8. 통제참여 유무에 따른 공존지수의 차이 검증	62
그림 9. 외생측정변인의 측정모형과 계수측정	66
그림 10. 내생측정변인의 측정모형과 계수측정	68
그림 11. 통제참여에 따른 감정적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75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어린이로부터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급속한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또한 가정과 학교를 중심으로 주위환경 속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역할, 삶에 대한 의미, 자신의 미래 등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자신의 참모습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이를 찾아 오랜 기간 동안 방황하면서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신체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인 건강을 고취시킨다. 특히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생애주기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활동일 뿐만 아니라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신체활동은 결코 신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의 내면화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된 활동적 주체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한혜정(1996)은 1991년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 이후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이라는 거대한 취지 아래 청소년 자율참여, 인권, 정보화, 국제화, 청소년의 정책참여 등의 이슈와 함께 꾸준히 진행해 온 가속력도 있었지만, 21세기는 문화산업이 주도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정부는 청소년문화활동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전쟁’시대로의 돌입, 그리고 그 전쟁이 아이디어의 전쟁이며, ‘문화산업’을 개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나가기 위해 문화를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문화와 관련된 시설(문화의 집, 정보문화센터, 청소년콘서트홀 등)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였고, 청소년문화행사와 축제 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곳곳에서 대규모의 청소년문화축제가 진행되었다.

특히 김진탁·김원인(1997)은 청소년기는 성인기로 이행하는 극적인 변환기에 놓여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정체성 위기의 시기로 보고 있다. 그들의 여가활동의 의미는 특히 인생의 극적인 변환기를 맞는 청소년들에게 자아성찰과 자아확립을 위한 기회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육체적으로 왕성한 성장(신체적), 자아가치의 혼란(정신적), 동년배집단의 소속감과 역할의 표출(사회적)과 같은 특징(최창석, 2000)을 갖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가시간은 단순한 시간 개념의 차원을 초월한 시간의 개념으로서의 의미로 이해시켜 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자아성취로 인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사회의 바람직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존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

단된다. 결국, 청소년기에 주어진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심성의 형성은 물론이고 올바른 자아정체성의 확립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김무곤(2003)은 자신을 둘러싼 많은 사람과 주위환경과의 '공존능력'을 키우는 것은 사회에서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견해를 펴고 있으며,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인간관계를 '네트워크(Network)에 비유하면서 구성원과의 유대관계와 조직 내의 결합력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무곤(2003)은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잘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존의 능력을 사회공존지수 즉, NQ(Network Quotient)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Susan & Douglas(1995)는 '남·여 청소년의 여가와 자아정체성' 연구에서 자유시간활동(스포츠, TV시청, 사회적 활동을 제외한 활동)은 여성, 남성 모두에게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Beth & Douglas(2000)는 레즈비언과 게이라고 밝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정체성을 개인정체성(personal identity)과 사회정체성(social identity)으로 나누어 여가역할을 설명하는데 독서(reading myself), 매체소비형(seeing myself-media consumption), 스포츠(playing myself-sports), 음악(expression myself-music) 등의 네 가지 테마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 네 가지 여가활동은 참가자들의 개인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Beth & Douglas(2000)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다양한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이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를 하나의 단일 문화로서 존중하여 청소년 문화축제가 지속성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청소년 문화축제가 있어 아직까지 일정한 틀이 잡혀있지 않으며, 연속성이 없어 일회성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 또한 문화축제를 주관하는 조직체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축제의 상황에 따라 주관, 주제, 조직, 형태 등이 상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축제의 영역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의 인적동원과 관심을 쉽게 끌 수 있는 스타공연이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은 등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축제를 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접해볼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지역별 문화관광축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역 주민 화합이라는 명목 하에 문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문화행사의 경우에는 청소년들만의 문화축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역문화축제의 경우에는 주로 주민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축제가 대부분이며, 그 지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축제로 자리 잡고 있을 뿐이다.

Reidar & Diane(1998)는 여가와 여가활동의 참여를 포함하는 자유재량시간(free time)이 활동

(activity), 사회적 문맥(social context), 장소(arena)와의 관여를 수반한다는 이론적 도식 하에서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는지, 또 그것이 자기 관여적(self-involving)활동인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passive-receptive)활동인지, 어디에서 이런 상호작용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본 결과, 청소년들이 자유재량시간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그들을 공동사회의 한 일원으로 적응시키고, 그들 자신의 활동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참여의식을 경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아정체성 확립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박소정(2001)은 청소년기 여가활동에서 행사참여로 인해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몰입행동 및 타인과의 접촉은 참여자로 하여금 여러 가지 감정적 견해를 가져오며, 이러한 감정적 견해는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자아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발달은 활동과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현실적으로 우리의 청소년들은 사회적 요구와 제도에 제약되어 그들이 임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이 억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틀 속에서 부여된 과제에 대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더욱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시간 즉, 여가시간이 주어질지라도 각종 유흥 시설에 쉽게 빠져들 수 있는 환경 하에서 여가를 왜곡하고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들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황주아, 2000). 즉, 여가를 일상생활에서의 불만의 분출구로만 여기고 있는 실정인 것어서 오히려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 여가시간에 주로 일어나며,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오히려 비행이 많이 발생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 가정으로부터의 긴장이나 갈등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김병천, 1992).

청소년들만을 위한 문화축제가 하면 지역의 복지관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노래, 춤, 댄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형태의 축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요즘에는 노래와 춤, 댄스 뿐 아니라 컴퓨터를 사용하는 청소년의 수가 증가하고 있어 컴퓨터 게임을 소재로 한 축제도 증가하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문화축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노래, 춤, 댄스, 영화, 만화, 컴퓨터게임 축제로 그 형태가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산발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지역적인 청소년 축제를 제외하고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축제로 1999, 새천년 청소년 문화축제, 청소년 문화 예술 축제 2000, Youth Festival 2000, Hana Festival 2001, 여수국제청소년문화축제(무술목청소년축제-새천년축제)가 대표적인 청소년 문화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축제는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정기적, 혹은 부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채로운 행사와 참여, 그리고 연예인을 동원한 공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축제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문화축제

가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측면만을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축제참여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문화축제에 참여 할 때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와 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부터 문화관광축제 육성사업을 실시하여, 지역별로 전통문화 계승 및 발전, 지역 주민 화합이라는 명목 하에 문화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문화행사의 경우에는 청소년들만의 문화축제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으로서의 청소년문화의 현실을 살펴보고 문화산업의 시대에 대비하여 청소년들에게 여가문화의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및 사회공존능력 향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문화교육의 장으로서 청소년축제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

3.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I.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유무에 따라 자아정체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유무에 따라 사회공존지수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III.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는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부문에 따른 자기개발은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부문에 따른 자신감은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부문에 따른 긴장완화는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부문에 따른 의무감은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Ⅳ.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에 따른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감정적 견해는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부문에 따른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타인의식은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정도에 따른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일원감은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만족에 따른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독립감은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바는 청소년 문화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 그리고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를 분석함으로써 그로 인하여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축제참가 할 때 갖는 감정적 견해

Reidar & Diane의 연구를 바탕으로 축제와 같은 여가활동에 참가할 때 갖는 감정적 견해에 관한 문항을 기초로 하여 전문가와의 상의를 거쳐 추가·수정된 1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축제참여시 자기개발, 자신감, 긴장완화, 의무감 등의 감정적 견해에 대한 17개의 문항을 Likert의 5점 척도를 이용하여 1점을 ‘전혀 그렇지 않다’, 5점을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2) 대인과 상호작용 할 때 갖는 감정적 견해

청소년기는 주로 동년배집단과의 상호작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누구와 주로 여가활동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혼자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단체 내에서’의 4개 항목을 1점 ‘전혀 안 한다’, 5점 ‘매우 자주 한다’, 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대인과 상호작용할 때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인 통제되어짐, 타인으로부터 자극 받음, 도움을 주고받음, 고독감, 수용감, 안정감, 권태 등 각각의 항목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의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자아정체성

인간이 성장하면서 갖게 되는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 인생목표, 가치관 또는 이념 등에서 자기가 지니는 독특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통합성과 일관성을 유지해 나가려는 의식적, 무의식적 노력을 자아정체성이라 한다.(박아청, 1996)

측정도구는 박아청(1996)이 개발한 ‘한국형 자아정체성 검사’의 일부 하위 영역을 전문가와 상의를 거쳐 각 하위영역의 문항수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의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아정체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사회공존지수

사회공존지수란 우리가 서로 함께 잘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존의 능력을 의미한다. 개인 중심의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서로의 성공을 도모하는 21세기의 새로운 행복론이다.

네트워크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하는 생활이, 자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본 연구자는 사회공존지수(Social Network Quotient)로 정의하고, 사회공존지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김무곤(2003)이 제시하고 있는 공존지수측정표에 의해서 네트워크 마인드, 네트워크 자본, 네트워크 유지, 네트워크 배려, 네트워크 자질, 네트워크 확장 등의 6개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5.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관계구조모형

본 연구는 자발적 행동에 관한 이론적 모형인 자아정체성 요인의 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자의 자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배경변인으로,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 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관계모형을 (그림 1)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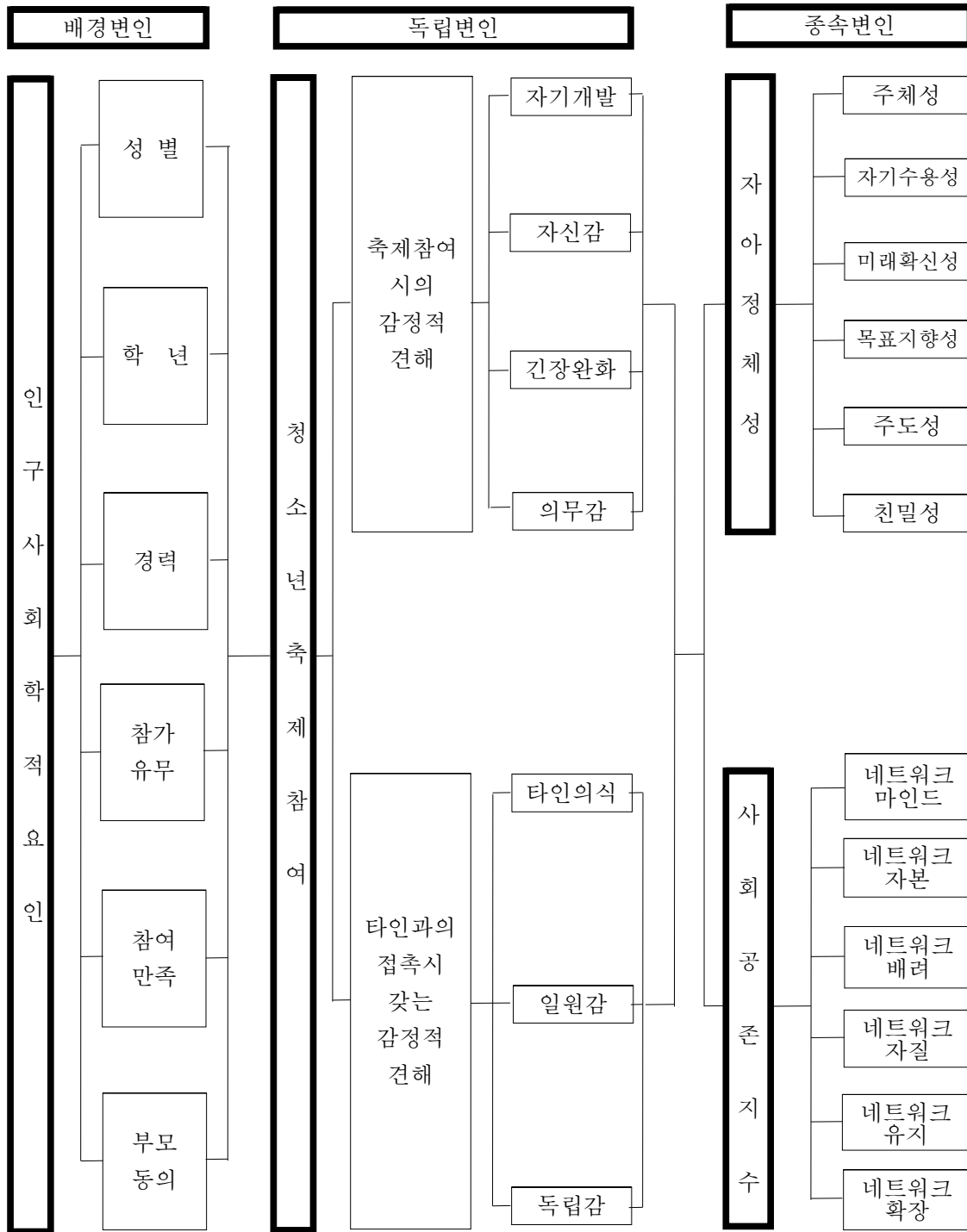


그림 1. 관계구조모형

1) 구조모형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청소년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청소년축제 참여시의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감정적 견해로 구분하여 각각 4개와 3개의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자아정체성 6개 변인과 사회공존지수 6개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관한 공분산 구조모형의 관측 구조에 있어서 잠재외생변수와 잠재내생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공분산 구조 모형의 잠재구조와 관측구조에 관한 관계 구조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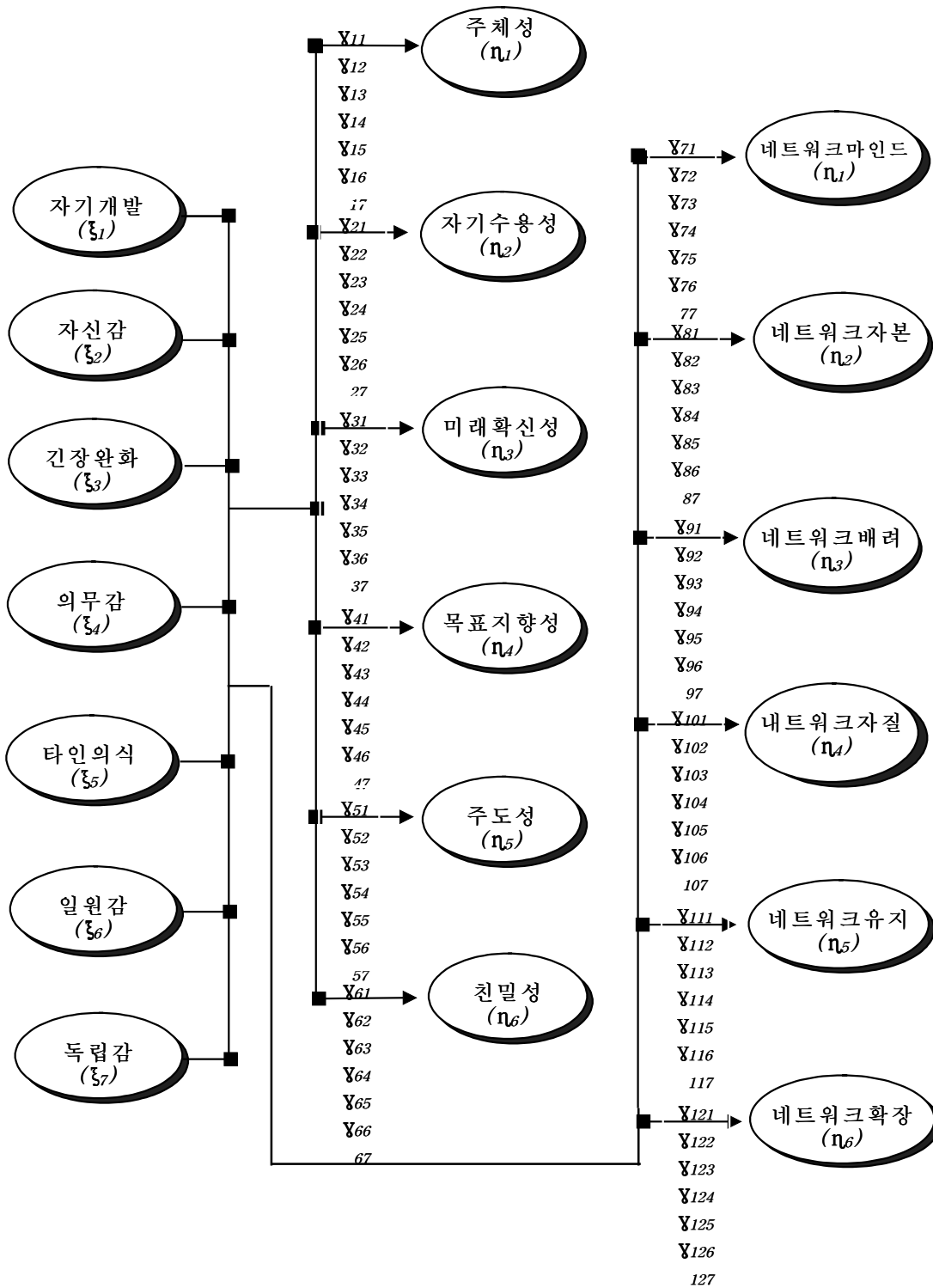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의 관계 구조모형

(1) 외생 관측 변수

<자기개발>

X1= 자신개발

X2= 정신적 향상

X3= 창의적

X4= 학업

<자신감>

X5= 기술우수

X6= 활동우수

<긴장완화>

X7= 긴장해소

X8= 스트레스해소

X9= 신명

<의무감>

X10= 어쩔 수 없는 활동

X11= 하지 않으면 안됨

<타인의식>

X12= 불편함

X13= 혼자편리

<일원감>

X15= 일원화

X16= 소속감

X17= 안정감

<독립감>

X18= 불편함

X19= 도움 안됨

X20= 혼자

X21= 지루함

(2) 내생 관측변수

<주체성>

Y1= 스스로

Y2= 일처리원활

Y3= 스스로처리

<자기수용>

Y4= 허무함

Y5= 살지 않음

Y6= 무존재감

<미래확신성>

Y7= 스스로 모름

Y8= 지속성 없음

Y9= 직업 결정 못함

<목표지향성>

Y10= 몰두하지 못함

Y11= 실행하지 못함

Y12= 오래가지 못함

Y13= 시간을 허비

<주도성>

Y14= 결단력 부족

Y15= 따라가는편

Y16= 결정 못함

<친밀성>

Y17= 불편함

Y18= 만남을 꺼림

Y19= 나서기 두려움

Y20= 두려움

<네트워크마인드>

Y21= 칭찬

Y22= 은혜

<네트워크자본>

Y23= 기원

Y24= 고민상담

Y25= 바람

Y26= 부탁

<네트워크유지>

Y27= 생일기억

Y28= 식사계산

Y29= 선물

<네트워크배려>

Y30= 회식

Y31= 여행

Y32= 음식메뉴희생

<네트워크 자질>

Y33= 감사의 인사

Y34= 엘리베이터

Y35= 보답

<네트워크 확장>

Y36= 연구회

Y37= 취미모임

Y38= 이메일리스트

(3) 외생 잠재변수

ξ_1 = 자기개발

ξ_2 = 자신감

ξ_3 = 긴장완화

ξ_4 = 의무감

ξ_5 = 타인의식

ξ_5 = 일원감(소속감)

ξ_5 = 독립감

(4) 내생 잠재변수

η_1 = 주체성

η_2 = 자기수용성

η_3 = 미래확신성

η_4 = 목표지향성

η_5 = 주도성

η_6 = 친밀성

η_7 = 네트워크 마인드

η_8 = 네트워크 자본

η_9 = 네트워크 유지

η_{10} = 네트워크 배려

η_{11} = 네트워크 자질

η_{12} = 네트워크 확장

6.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배경변인, 조사도구, 관계설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제한점을 지닌다.

첫째, 청소년축제 참가자의 시도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청소년축제 참여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는 자기개발, 자신감, 긴장완화, 의무감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로는 타인의식, 일원감, 독립감으로 제한하였다.

셋째, 자아정체성요인으로는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제한하였다.

넷째, 사회공존지수요인으로는 네트워크 마인드, 네트워크 자본, 네트워크 유지, 네트워크 배려, 네트워크 자질, 네트워크 확장으로 제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축제의 의미

축제라고 하는 의미는 흔히 무언가 일상과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것이며 의미가 있거나 또는 형식과 무질서를 동시에 담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그것은 축제의 개념 속에 이와 같이 다양하면서도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의미들이 동시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비록스(김명자, 이종인 외, 문화체육부, 1996)의 축제에 대한 정의에서도 이러한 측면은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는 축제의 세 가지 본질적 요소를 고의적 과잉성, 축의적 긍정성, 대국성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고의적 과잉성이란 축제만 되면 참여자들의 고의에 의한 과잉적 행동, 즉 일탈적이고 비규범적이기까지한 행동들이 잘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동체적 규범에 대한 준수로부터 잠시 벗어나 사소한 일탈을 경험함으로써 억압된 반대욕구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동체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축의적 긍정성이란 축제가 지니고 있는 긍정적 의미로서 축제는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축제에 참여하여 일정의 일탈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본질적 태도 속에는 삶을 보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강한 욕망이 강하게 위치해 있다는 것이다. 축제가 끝나면 또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삶의 긍정성 때문인 것이다. 셋째, 대국성이란 과잉성과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축제 속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일상적 모습들과는 다른 대조적인 것으로 즉, 비일상적인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공동체의 의지를 위한 축제,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위해 오히려 공동체 성원들에게 비일상적이고 과도한 행위양식들을 허용하는 이중적 요소의 모습이 하비록스가 이야기하는 축제의 구성요소이다.

김문환(이상일 외, 1988)은 다음과 같이 10가지의 특징들을 추론해내고 있다.

- A. 축제는 고유한 시간형식을 가진다 그러한 시간형식을 환희적 현재라고 부른다.
- B. 축제는 고유한 공간, 곧 축제장소 내지 축제공간을 요구한다.
- C. 축제의 핵심은 기분에 있다 축제는 고도의 기분을 통일함으로써
- D. 축제의 동기는 어떤 반복되는 사건이나 일회적인 사건이다.
- E. 축제를 통해 무언가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일상성을 뛰어넘는 고양된 진행이 행해짐을 뜻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렇게 고양된 것은 다시금 삶과 결부된다.
- F. 축제는 일상적 삶에서 두드러지게 벗어남으로써 일상적인 삶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다.

- G. 놀이와 그것의 직관은 상호 밀접하게 섞여서 축제에 속하고 있다.
- H. 축제는 아무렇게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소간 엄밀히 준수되는 규칙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된다.
- I. 축제는 그의 시간적 경과에 있어 삶을 뛰어 넘으면서 다시 삶을 정렬하고 동시에 삶 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 J. 축제는 자기 자신을 넘어간다 축제 속에는 두 가지 경향 즉 자기정위(selbst-position)와 자기 퇴위 (selbst-abdikation)가 불가분적 통일로 결합된다.

이상의 인용문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축제의 두 가지 상반된 의미, 다시 말하면 일상과 비일상, 자기 자신과 공동체, 규칙과 탈출 등과 같은 이중적 의미의 축제 내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중적 요소의 통합은 곧 일상이나 비일상 모두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요인이기 때문이다. 성원들에게 언제나 공동체를 위해 존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 즉, 집단의 규범에 종속되도록 강조하는 것만이 반드시 공동체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정해진 일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구성원들에게 사소한 이탈을 경험하게 하는 것 또한 유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존속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축제의 본질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게 되는데 즉, 축제의 본질적 의미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의식(의례), 즉, 공동체적 제사로부터 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뒤르카임(E. Durkheim)의 개념을 차용하여 표현한다면 공동체의 연대성과 구속성을 높임으로써 공동체의 급진적 변화를 차단하고 따라서 공동체의 안전하고 지속적인 유지와 생존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제사와 같은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의례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이탈을 막고 궁극적으로는 연대성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축제의 본질적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센지오(M. Massemzio, 1999)의 논의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축제는 구성원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현실 속에서의 문화적 조직들을 의례화하게 하여 그들만의 세계를 재구성하게 하는 기능, 즉 각 구성원들에게 집단정체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들이 소속되어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신체성 속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바로 축제의 본질적 의미이다.

그러나 김명자(이종인 외, 문화체육부, 1996)의 주장처럼 축제의 본질적 의미가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언제나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또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축제의 모습에서는 과거 공동체의 존속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성함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던 것과 달리 일련의 신성함보다는 단순한 일상적 탈출의 경험과 그로 인한 일상에서의 부정적 요소의 제거나 극복에 보다 큰 의미를 두

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축(祝)과 제(祭)의 의미가 이제는 큰 중요성을 차지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전 인류에게 있어 일상적 겨울축제의 하나가 되어버린 크리스마스도 처음에는 신성하고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비 기독교인들도 즐기는 일상축제로 되어버렸으며 (M. perrot, 2000), 한국사회에서의 추석이나 설날 또한 조상에 대한 엄숙한 제사라고 하는 과거의 신성함이 약화되고 형식적 차례를 지내거나 또는 차례를 생략하고 연휴를 즐기는 등 이미 일반화 되어버린 일상적 축제의 의미를 가지게 된 현상 모두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청소년문화축제

축제의 종합적 의미는 신성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경험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축제의 여운을 일상 속에 투입하고 이를 공동체적 정체성의 확립과 삶을 위한 긍정적 에너지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일련의 재생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축제는 어떠한가 하며 그 의미와 가치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청소년문화의 특징과 청소년문화축제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살펴보자.

1) 한국 청소년문화의 특징

한 사회의 청소년문화는 기성세대와의 관계상 그 사회의 문화적 특성으로부터 영향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학자들의 논의를 통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청소년 문화를 하나의 하위문화로 규정할 경우 하위문화의 탄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화가 기성 문화이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 특성도에 따라서 한국사회의 기성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부터 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들(최원기, 2001. 최원기, 전경숙, 김창남, 2000. 이종원, 주동범, 서정아, 2000. 한준상, 1997. 임광진 1994. 등)을 종합해 볼 때 기성세대로부터 전이되어진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그들만의 문화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주의에 기반한 집단주의적 특성이다. 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이지만 이것이 가족의 범위를 벗어나 사회적 단위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우리는 이를 하나의 사회적 이데올로기로서 가족주의라고 명칭 한다.(최재석, 1994)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가족에 기반한 집단주의는 아직 유효하며 문화적 특성으로 위치해 있다. 다만 보다 중요한 점은 점차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간의 혼란성이 증가해가고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최원기, 2001).

둘째, 물질주의적 경향이다.(최원기, 2001) 반세기 이상 경제성장이라고 물질주의로의 지향성에 몸을 맡겨왔던 기성세대의 특성이 이제는 과학의 급격한 발전과 극대 자본주의에 기반한 세계화 경향의 영향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물질주의적 태도를 높은 강도로 자극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가장 높은 구매력을 지니고 있는 소비계층으로서의 청소년들을 볼 때(최원기, 전경숙, 김창남, 2000) 이들 문화의 특성 중 하나로 물질주의적 경향을 지칭한다는 것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셋째, 다양성의 증가이다.(최원기, 2001) 사회적 행위규범의 틀이 넓어지고 문화적 교류와 소비 패턴 등이 급속하게 확산 및 다양화되어짐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행위 및 사고의 틀, 즉 문화적 행위양식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음악, 댄스, 영화 등과 같은 여가활동의 장르가 다양해지고 직업 선호도 등도 과거와는 달리 넓어짐으로써 청소년문화의 특성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 부분은 기성세대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차원에서의 사회제도적·이데올로기적 변화가 가져다준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청소년문화의 특징으로 자리 잡은 이후에는 다시 기성세대의 가치관 및 행위양식 등에 역 영향을 주고 있기도 하다.

넷째, 기성세대에 의한 기반 조성으로부터 영향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으로서 대중매체에의 높은 의존성을 들 수 있다.(최원기, 2001) 이 부분은 다른 표현을 빌린다면 감각적이고 직관적인 영상세대(최원기, 전경숙, 김창남, 2000)라고 하는 의미와도 연계되어진다. 기성세대에 의해 발전된 과학기술의 기반을 수용하여 영화관, TV, 라디오, 인터넷 등과 같은 대중매체의 활용성을 높인 것이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의 문화적 특성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가상과 현실의 혼돈이다.(최원기, 2001) 인터넷과 같은 가상세계가 급속한 속도로 일상화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의 현실들 중 일부분이 가상세계와 혼돈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게임에서의 무기들을 차지하기 위해 현실 속에서 절도, 협박, 살인 등과 같은 범죄를 자연스럽게 저지르는 모습은 이러한 특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여섯째, 성의식의 개방성 증가이다. 개인의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더 이상 종족보존이나 집단의 혈통계승이라고 하는 의미로 인식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개인적 욕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성 개념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부분은 오히려 기성세대에게 일종의 문화적 영향력으로 작용하여 전이되어짐으로써 한국사회의 성문화 변동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곱째, 김창남(최원기, 전경숙, 김창남, 2000)이 지적하고 있듯이 학교 및 입시를 중심으로 한 사회제도적 기재로부터 강한 통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점이다. 즉, 규정되어진 교육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으로 인해 결국 청소년 문화의 범위에도 일종의 틀과 한계가 지워져 있으며, 새로운 창조성이 발휘되기 어렵다고 하는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덟째, 아직 그 발전 정도는 미약하지만 기성세대의 그것과 비교해볼 때 문화감수성의 발전 가능

성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부분이다.(최원기, 전경숙, 김찬남, 2000) 특히, 동아리활동이나 대안학교 등을 통해 자신만의 영역을 찾아가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문화감수성 발전 경향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새로운 문화 창조와 발전을 위한 노력과 과정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측면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상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오늘날 한국 청소년문화의 특징은 기성세대의 문화적 특징과 그들이 창조적 특징을 혼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등 보다 성숙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과도기적 상태에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서구 청소년들이 60년대 후반 이후 이미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어왔던 사실을 비교해 볼 때 그 과도기적 위치와 또한 발전 가능성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청소년문화축제의 문화사회적 의미와 연계되어 그 중요한 의미가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문화축제의 의미와 가치

청소년문화축제를 포함해 청소년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사회적 의미 또는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축제의 본질적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체계에 묶여 있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비일상적 역동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축제의 의미인 삶의 긍정성과도 연계되어지는 부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긍정적 삶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 역할로 작용한다.

둘째, 축제가 지니고 있는 인간주의적 가치관이 축제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체화됨으로 인해 물질주의적 가치관이나 높은 매체의존성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가치관 혼란으로부터의 탈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축제가 지니고 있는 비 일상성의 경험으로 인해 자기 내면에 감추어져 있던 숨은 자아를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곧 사고의 유연성 강화 또는 다양성의 증진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다주게 된다는 점이다. 사고의 틀이 넓어짐으로써 문화적 창조성이 발전될 수 있다.

넷째,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연대성을 경험함으로써 공동체 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체성의 발견은 사회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축제의 활성화는 한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및 세계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에 절대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축제가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의미들의 획득을 통해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주체성, 독립

성, 문화의식 등으로 구성되는 문화감수성의 발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문화감수성의 발전은 각 청소년들에게 있어 사회적 윤리의식의 강화로 이어져 한 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국, 청소년들은 축제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일상 또는 비일상적 경험을 통해 작게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 능력 및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되며, 크게는 국가와 사회 나아가 인류 전체의 연대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공동체 성원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축제의 관용성과 지속성 및 그로부터 산출되어 나올 축제의 전통성 등이 확보되어 진다면 축제가 청소년문화에 미칠 영향력은 그 어떠한 사회화 과정이나 도구보다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3) 한국의 청소년 문화축제의 현황

청소년 문화라 하면 아직까지도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문화로 보기보다는 성인문화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분명히 성인기와는 또 다른 시기로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기성세대들은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고, 더욱 다양한 문화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대와 세대와의 단절보다 공감을 바탕으로 청소년 문화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청소년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문화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개성과 끼,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와 같은 문화의 장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청소년들과 다양한 문화를 교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현대 청소년의 여가 문화

여가 기회는 개인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 있어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안락감과 행복감을 가져다준다.(전신현, 1996)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이란 학교에서 지적활동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내용에 비해 훨씬 다양한 인지적·정의적·심리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청소년기의 건전한 여가 활동은 비행, 폭력, 범죄 등의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는 예방책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보람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여가활동은 매우 추상적인 의미로 이해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여가활동을 운동이나 여행, 외식, 영화보기 등과 같은 막연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여가를 제대로 활

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자아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여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하는가에 따라 청소년들의 자아상과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는 성년의 모습을 띠게 되지만 정신적으로는 아직 원숙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그 자신과 사회에 대해 매우 불안정한 심리를 보인다(김영석, 1991). 따라서 청소년기는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면서 교양 함양과 인격수양을 통해 사회에 올바르게 적응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여가의 건전한 활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leiber(1986)등은 청소년들은 여가를 통해 단순히 긴장 완화 등의 경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는 과도기적 활동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다. 운동경기나 예술활동, 취미활동을 통해 성인 역할을 준비하기도 하고 성인이 되어 필요한 도전과 집중과 관련된 행동들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김명조(1990)는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여가 활동은 신체 건강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학교·사회 생활에서 받는 욕구불만, 좌절, 갈등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 시켜줌으로써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고 타인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게 해주며,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적응력을 길러준다고 하였다.

최원기(2000)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여가 생활을 지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청소년들에게 절대적 신뢰를 부여해야 하고 통제 우선의 방법을 지양함에 의해 청소년들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야하며 둘째, 주체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셋째, 교육의 본질적 의미는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성공에는 다양한 길이 있음을 인식시키고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듯 여가 시간이 증대할수록 청소년 비행 비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탈선과 비행을 위한 시간으로 낭비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크게 어긋나는 일 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정·학교·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총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청소년기의 발달

청소년들이 직접 경험하고 성장하는 모든 발달적 환경이 그들에게 긴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다. 특히 정서적으로 민감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들이 경험하는 발달적 환경은 그들의 장래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인간발달 단계상 독특한 특성을 보이는 시기로 한 인간의 생애에 있어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흔히 제2의 탄생이라고 불리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볼 때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적 단계로 아동기적 발달 환경에서 성인의 발달 환경으로 이행해 가면서 두 환경간의 교차된 영역을 갖게 됨으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적 위치에서 사회적으로는 기존의 사회구조에 편입되지 못하는 주변적 위치에서 갈등과 방황을 함으로 정체감의 혼란을 겪게 된다.

1) 청소년기의 발달 특성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을 급격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대다수의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성이며, 동시에 각 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독특한 발달 특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많은 문제와 혼란의 시기로 인식되는 청소년기는 흔히 사춘기와 함께 시작되는데, 이 시기를 특징짓는 기본적인 발달적 변화로는 사춘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생리적 변화, 이전의 시기에 비해 더욱 발달된 인지적 능력의 변화, 사회관계 속에서 새롭게 획득하는 개인의 역할 변화 등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1) 청소년기의 정의와 발달 특성

청소년(adolescence, Youth)이란 용어는 라틴어로 성장한다(to grow up) 또는 성숙에 이른다(to come to maturity)란 의미로써 이 시기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성장이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전환기적 의미를 암시하고 있다.(Nielsen, 1991) 청소년기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하고 있다. ① 청소년기는 생식기관과 성 특징들이 나타날 때 시작하여 생식체계의 완전한 성숙과 함께 끝나는 생리학적 정의(Douvan & Gold, 1966). ② 추상적 사고와 논리적 추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상위인지(metacognition)능력을 갖기 시작할 때 청소년기가 시작되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끝난다는 인지적 정의(Kuhn, 1979). ③ 사춘기의 출현으로 청소년기가 시작되어 사회적 요구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처양식이 확립되므로 사회가 그들의 성인됨을 인정할 때 종결된다는 사회학적 정의(Sebald, 1968). ④ 10세부터 19세까지를 청소년기로 보는 연령에 따른 정의(Ramsey,

1967). 우리나라의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연령적으로는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⑤ 사회적 자유가 허용될 때 청소년기가 시작되어 대다수의 청소년들 연령이 법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종결된다는 짐링의 정의(Zimring, 1982)가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영역적인 정의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사춘기 혹은 성적 성숙에서 출발하여 성인의 책임을 맡을 때까지로 정의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청년기 및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로서 사춘기를 특징으로 여러 가지 발달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청소년기를 인간발달 과정의 특징적인 한 시기로 분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Sprinthall & Collins, 1995).

청소년들의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발달 특징은 청소년기 전기에는 급속한 신체적 성장 변화와 인지적 발달을 경험하며, 청소년기 후기에는 자아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청년 및 성인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제에 집중한다. Freud(1920)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심리성적 발달단계 중에서 마무리 단계인 생식기(genital stage)에 해당하는데, 보통 11~13세 정도에 시작되며 여자 어린이가 남자 어린이보다 1~2년 정도 빨리 시작한다. 이 시기에 성적 에너지가 강력해지면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재등장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신의 이성 상대자를 선택함으로써 그들이 부모에게 느끼는 친밀감에 대한 위협은 사라지며, 청소년기 말기에는 부모와 좀더 자주적인 관계를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소년기가 되면 자아의식이 민감하게 되어 자신의 신장, 체격, 용모를 타인과 비교, 평가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따라서 키가 크고 작은 점과 미모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갖게 되고 고민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내면적인 것보다 외적인 신체부분, 즉 키의 크고 작음이나 비만, 얼굴모양, 체격과 미모 등에 가장 많은 관심을 나타낸다(임창재, 2001).

Freud(1958)는 청소년기에 오이디푸스 감정을 재 경험하며, 이와 같이 성숙한 청소년이 가족에게 가하는 성적 위협의 결과로 청소년기의 긴장상태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은 가족으로부터 회피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부모를 경멸하려는 것과 같은 반응으로 대처한다. 이러한 반응은 일반화되어 자신이 애착하는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려는 금욕주의적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혼란과 방어는 자유로와지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rikson(1963)은 청소년기에 충동적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기에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가 대두된다는 것이며, 그 결과 혼란과 당황을 경험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부과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신의 정체감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청소년기 초기에는 집단의 소속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감을 파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청소년기 후기로 갈수록 개인적인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된다. 또한 인간 개인의 발달과정에서 인생초기의 경험이 중요하기는 하나 성장과정 동안의 사회 문화적 경험이

인격형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여 청소년기에도 인성은 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청소년기의 자아정체성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이론은 청소년기의 발달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청소년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기에 관한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청소년기를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간주했다. 어떤 사회에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기념하는 특수한 의식을 갖기도 한다. 이 시기는 하나의 고유한 인간으로의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하여 혼란과 방황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성적으로 성숙하여 생식의 기능을 갖추게 된다(이인정, 최해경, 1998)

(2) 청소년기의 발달에 따른 문제행동

청소년기는 다른 시기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갖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발달 특성상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부모, 성인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추구하고, 기존의 가치관을 재구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외적으로 다양한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통하여 갈등을 해소하기도 하고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도 하며 외적 행동과 내적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 변화와 더불어 경험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갈등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송병순, 1998)

자기정체(self-identity)의식이 뚜렷하지 않은 과도기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기성세대에 대해 반항하기도 하고 스스로 심한 좌절감을 맛보기도 한다. 사회에서의 자기 위치와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데서 자칫 소외감에 젓기도 한다.

청소년들의 욕구수준의 상승을 들 수 있다. 대중매체의 발달과 소비문화의 발달로 자신의 능력 이상의 꿈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를 수 없는 욕구 때문에 쉽게 좌절을 맛보게 되고, 좌절감은 때로 무방향적 행동과 극단주의에 빠지게 된다.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저항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변화와 물질문명, 개인주의적 사회구조의 발달로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질서는 물론 부모에 대한 태도마저 달리 하고 있다.

규범의 갈등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다. 규범 갈등이 심하면 아노미(anomie)상태에 빠지기 쉽다. 다시 말하면 규범이란 행동의 지침인데 지켜야 할 것이 너무 많거나 자주 바뀌어 일정하지 못하면 자연히 무규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규범을 지키기 어려울 때는 소속감을 잃게 되고 그래서 무능력해지고 어떤 일에도 관심을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

친취적이고 능동적이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낸다. 부모의 지나친 보호와 학교

의 암기 위주의 틀에 박힌 교육과 사회구조 등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인생을 쉽게 살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자신의 청소년기 발달과업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갈등과 문제점을 순조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사리판단을 잘못하여 비행을 저지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행동을 저지르기도 한다. 예컨대 목적달성이 여의치 못하거나 전혀 가망이 없을 때 열등감에 사로잡혀 퇴행적 행동, 현실도피 또는 과격한 행동을 저지른다.

(3)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 특성과 심리

이 시기에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신체적 발달은 성적으로 성숙하는 사춘기(puberty)라는 현상으로 급속한 신체의 외형적 성장과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생식능력의 획득이다. 사람의 발달주기에서 가장 빠른 신체적 성장 시기는 출생 후 1~2년이지만,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신체적 성장 또한 다른 단계들에 비해서 매우 빠르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소년들은 신장이 확대되고 근육이 발달함으로써 어른의 신체적 형태로 이행된다. 남자의 경우 신장 증가는 20세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며 14세 정도에서 가장 급속한 성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Tanner, 1971). 이러한 키의 급속한 성장은 근육발달과 시간적 격차를 나타내게 함으로 소년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의 양면적 반응을 보인다(Newman & Newman, 1987 : 322). 첫째, 어른에 가까운 신장의 확대는 긍정적인 반응을 들쭉, 신장의 확대와 근육발달간의 시간적 격차로 인한 불균형적 어색한 모습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한편 이 시기에 소녀들의 신체적 성숙은 11세 전후에 급속한 성장이 시작되는 것으로 남자보다 대략 두 살 정도 빠르게 온다. 이와 같이 신장의 성장이 남자보다 먼저 오기 때문에 같은 연령의 소년들보다 키가 큰 경우가 많다. 이 시기의 소녀들이 외모의 변화에서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성장 급등에 따라 일어나는 체중의 증가이다. 아동의 신체적 형태에서 어른의 풍부한 형태로 신체가 변화하며 전체적으로 외모가 부드럽고 완만한 형태로 이행된다.

청소년기를 대표하는 사춘기는 아동기의 5세와 9세 사이에 시작되었던 성호르몬의 변화가 이 시기에 급속하게 증가하여 체형이 변화하기 시작함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와 함께 청소년기 동안에 개개인이 보이는 성숙의 차이는 이 시기의 부적응 문제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Davis & Palladino, 1997). 일반적으로 성숙을 일찍 경험하는 소녀들이나 늦게 경험하는 소년들은 어려운 부적응 문제를 겪게 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은 친구나 선생님 등을 통해 성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되며, 대부분 이 시기를 거

치면서 불안감과 성적 쾌감을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4) 청소년기의 인지적 발달 특성과 심리

청소년 전기에는 육체적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새로운 사고방식과 인지적 능력이 확대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아동기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즉흥적인 사고 체계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고 보다 수준 높게 사고하는 기술을 발달시키기 시작한다. 즉, 이상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고 예측해보며, 과거에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신념을 탐색하기도 하며, 성인들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기도 한다. Piaget(1977)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사고 수준을 형식적 조작 사고라고 불렀다. 이는 피아제가 제시한 인지발달이론의 최종 네 번째 단계로 이 시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전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에서는 어려웠던 추상적인 관념이나 개념에 관해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른 청소년들의 사고는 보다 더 유연하고 상대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괜찮게 생각되는 사람에게도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나아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형식적 조작기에서 볼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사고 능력은 현재 직접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넘어서 죽음, 자유, 종교,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미래사회의 전망 등과 같은 추상적인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바로 이 청소년시기에 와서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인지 능력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이르게 되면 인지발달 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게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수준의 지적 발달을 이루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교육이나 자극을 받지 못한 성인들 가운데는 형식적 조작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이전 단계인 구체적 조작기의 발달에 머무는 경우도 많다(오세진 외, 1999). 아울러 청소년 후기에 오면 전기의 청소년들 보다 또 다른 차원으로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비록 모든 십대의 청소년들마다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독특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길 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발달, 친구들과의 우정, 다른 사람의 관계 등을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과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이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외부로 드러내기 위한 방법들에 집착하기도 한다. 이렇게 외부로 드러내려는 독립성은 운전면허증을 획득하거나 자신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행동 등으로 나타난다.

독립성을 추구하는 것 이외에도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

리려 한다. 즉, 미래의 직업을 탐색하고 준비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직업의 세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직업의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이나 능력 요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다. 상급학교에 진학하되 인문계 학교에 진학하든지, 아니면 실업계 학교에 진학을 결심하기도 하며, 때로는 졸업 후에 곧바로 직장생활을 결심하는 경우도 있다.

(5) 청소년기의 사회적 발달 특성과 심리

청소년 전기에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는 많은 이유에서 비롯된다.(신은숙, 1999) 첫째, 청소년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신체적 변화와 청소년기에 발달되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의 변화 때문에 일어난다. 둘째, 부모와 사회로부터 청소년들에게 인정되는 어느 정도의 자유와 책임감이 사회적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기여한다. 그 이유는 청소년 전기에는 아동기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더 많은 장소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시기에는 또래집단이 급속히 중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점차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독립성을 가지게 된다. 넷째, 청소년 전기에는 같은 성(性)을 우선적으로 친구로 삼는 것에서 다른 성과 친밀해지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시기에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탐색하게 되고 학습하기를 시작한다.

한편 청소년 후기의 청소년들은 감독하는 사람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도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relationship skills)이 비교적 잘 발달되고 친구와의 우정이 비교적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결혼을 계획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결혼을 하거나 심지어는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성인들은 이러한 청소년 집단을 지도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들은 십대 초반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던 것과는 다른 역할을 취하게 된다. 그들은 촉진자(facilitators)가 되며 청소년들이 리더십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또한 성인들은 조정자요 조언자가 되며, 청소년들을 위해 새로운 경험을 준비하는데 노력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더 많은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하도록 장려할 뿐만 아니라 보다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조언한다. 청소년들은 성인들이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이자 자원이 되어 주기를 원한다.

(6) 청소년기의 정서적 발달과 자아정체성 확립

청소년기에는 정서가 매우 강하고 변화가 심하며, 극단적인 정서경험을 한다. 이러한 정서적 특성

때문에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극단적 정서변화는 성적 성숙과 많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2차적 성적 특징의 발달과 그로 인한 성적 충동으로 인하여 성적 색채가 강한 정서를 경험하게 되며, 성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 강해지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있으면서도 이를 거부하거나 반대로 허세적인 반항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김동배, 권중돈, 1999)

청소년기전기는 감정이 격하고 기복이 심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낙관적, 비관적 감정이 교차하기도 하고 자부심과 수치심을 강하게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부모나 형제,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 없는 감정의 경험을 통해서 고립감을 느끼기도 한다. 다양한 감정 중에서 강한 수치심, 죄의식, 우울, 분노, 수줍음 등은 문제행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고 변화가 심한 감정상태가 청소년기 전기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주요한 과제는 자신의 감정에 보다 관대해지는 것이다.(Newman & Newman, 1991) 이것은 자신의 격한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러한 감정상태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급격한 정서변화에 반응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 어떤 청소년은 부정적 정서경험을 지나치게 억압하여 우울증이나 신경성 식욕부진에 걸리기도 하는 반면 정서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나치게 충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비행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자신의 정서변화에 대한 인내심을 길러야 하며,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소년기 후기에는 자신의 본질적인 인격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히게 된다. Erikson(1968)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이 자아정체성 형성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아정체성(ego identity)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으로, 행동이나 사고 혹은 정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이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의 자아정체성은 각 개인이 인간이라고 느끼는 인간성 차원, 남성 혹은 여성이라고 느끼는 성별차원, 각 개인이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느끼는 개별성 차원, 그리고 시간경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계속성 차원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아동기의 동일시 경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부모나 선생님, 친구들의 감정, 태도, 가치관, 행동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자기만의 독특한 총체로 통합함에 따라 정체감이 형성되어 간다. 그러므로 정체감 형성은 부분적으로 어린 시절의 부모에 대한 의존으로부터의 정서적인 분리를 포함한다. 청소년들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자주적인 선택을 하기 위하여 부모의 가치와 규범을 점점 더 나뉘게 재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체감 형성의 과정은 아동기에 그 뿌리를 두고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지속되지만 특히 청소년기 후기에 가장 중요한 이

슈로 등장하게 된다. 자아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은 신념, 가치관, 정치적 견해, 직업 등에서 스스로 의 사결정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안정된 자아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성숙과 성적 성숙, 추상적 사고능력의 발달, 정서적 안정성의 확보 그리고 부모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역할실험을 통하여 자신의 특성을 인정하고, 타인의 견해를 이해하며,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4. 자아 정체성

1) 자아정체성의 정의

자아정체성(self-identity)이란 말은 라틴어의 *identicus*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 사람임에 틀림없는 본인이다’, ‘그것의 자기 자신’,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박아청, 1995).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Erikson(1956)은 자아정체성을 객관적인 측면과 주관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Erikson에 따르면, 정체성의 객관적인 측면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귀속감 내지는 일체감을 의미하며, 민족적 주체의식이라든가 국가적 주체의식 등으로 나타나는 집단정체성이나 국가정체성을 말한다.

이와는 달리, 정체성의 주관적 측면인 개별적 정체성(individual identity)은 개인이 집단 내에서도 타인과는 다른 독립된 고유한 존재로서 갖게 되는 정체의식이다. Erikson은 개별적 정체성을 다시 개인적 정체성과 자아정체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 정체성(Personal identity)이란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 자신이 여전히 동일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임을 인식하는 것이다. 즉, 어떤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변함이 없는 자기 자신의 동질성과 연속성에 대한 느낌을 말한다. 이런 개인적 정체성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자아정체성(ego-identity)은 자기 자신이 언제나 동질적이고 연속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식 이상의 것이다. 즉 자아정체성이란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시키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ego-quality)인 것이다.(서봉연, 1988)

Waterman(1982)은 자아정체성의 구성요인으로 자기에 대한 명확한 정의, 인생의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한 결정, 결정한 것의 실행을 위한 실제적 활동, 정체성을 갖기 위해 여러 대안들 중 하나를 찾기 위한 탐색, 자기 수용의 정도, 각 개인의 독특성에 대한 감각,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 등을 말하고 있다.(Waterman A. S., 1982)

Marcia(1980)는 자아정체성이란 여러 가지 충동, 능력, 신념 및 개인의 생활사 등의 자체 발생적인

내적인 체계인 자기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개인의 자기구조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적인 개념이므로, 자기구조로서의 자아정체성은 자기 통합성을 이룩하려는 심리기능들이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조가 잘 발달된 사람은 자신의 장·단점과 다른 사람과의 유사성 및 독특성을 잘 깨닫는 반면, 이런 구조가 발달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찾으려 하고 외적 자원에 의존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혼미적인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Cote & Levine, 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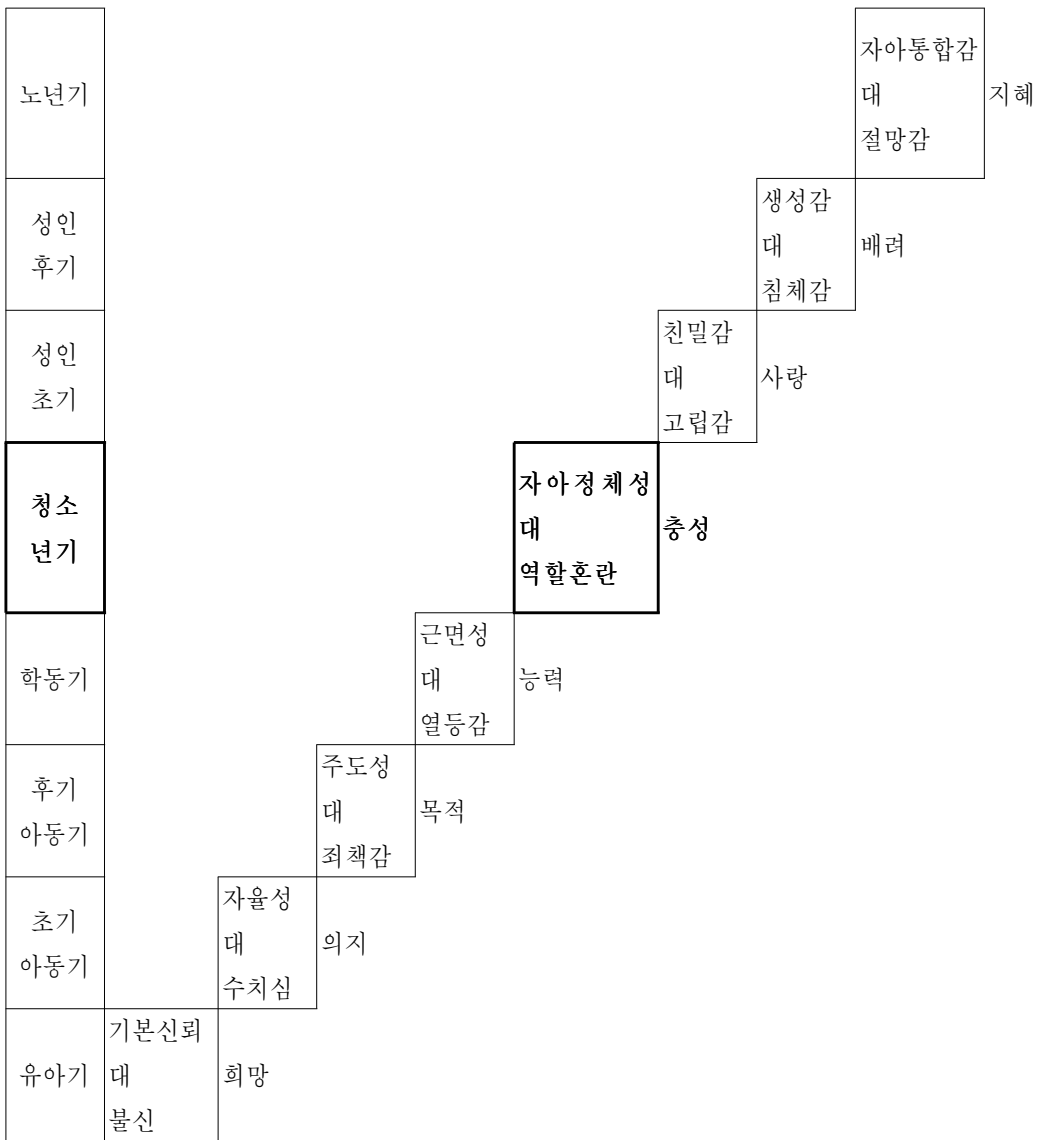
만일 청소년기에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의 시기에 남·여의 성역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혼란,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지도감과 복종감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권위의 혼란, 그리고 인생에 대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립하지 못하는 가치의 혼란 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

서봉연(1988)은 자아정체성이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부합되는 자기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 무의식의 노력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정의들을 정리해 보면 자아정체성이란

첫째, 자아의식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말하며 둘째, 이런 연속성과 동일성이 타인과 자신에게 똑같이 지각되는 것에서 오는 자신감을 포함하고 셋째, 주관적인 자아뿐만 아니라 상호적인 자아로서 확고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양식을 지닌 진정한 자아에 대한 존재 증명이라 할 수 있다.(조학래, 1995)

이런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행동을 결정짓는 가장 중심적인 내적 성향이기 때문에 성숙하고 바람직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은 개인이 공동체 사회에 적절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아실현을 도울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미래의 성인기를 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W. W. Norton.

그림 3. Erikson의 사회·심리적 발달 8단계

2) Erikson의 사회심리이론

Erikson의 이론은 자아의 성장에 관심을 가졌고 인간발달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즉, Erikson은 모든 인간에게 요구되어지는 적절한 대응능력, 자기 자신 및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 등을 유아기로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

이러한 Erikson의 사회·심리학적발달론의 각 단계별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단계마다 발달과업과 위기가 있고, 그에 따른 결정적 시기가 있다. 둘째, 각 단계의 발달 과업과 위기는 대립되는 인격 특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셋째, 각 단계에 있어서 위기의 해결은 그 단계의 상호 대립되는 인격 특성의 영속적인 균형을 유지함으로 해결된다. 즉 각 단계의 특성 중 긍정적인 측면만 강조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배제할 경우에는 중요한 발달장애가 일어난다. 넷째, 각 단계에서 발달위기를 해결하였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의 순조로운 이행과 전체적인 발달의 가능성을 뜻한다. 다섯째, 모든 사람은 각 단계의 발달과업을 스스로 성취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위기는 재난 등의 위협적인 것이 아닌 일종의 전환점을 말한다. 그러므로 각 단계에서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는가에 따라 각 개인의 성격 특징을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다. Erikson은 각 단계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즉 위기로부터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 낼 때 높은 자아존중감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Erikson은 점성원칙(epigenetic principle)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심리적 발달 8단계를 위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도표의 대각선상의 네모는 각 단계의 긍정적, 부정적 요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작은 네모는 각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획득하는 사회·심리적인 능력(strength) 혹은 덕성(virtues)을 나타낸다.

여기서는 사회·심리적 8단계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정체성 형성’ 대 ‘역할 혼란(identity versus role confusion)’을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심리적 문제는 긍정적인 면에서 자아정체성을 성취하고 부정적인 면에서 역할 혼란이 나타난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실행해보고 이런 역할들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시기이다. 청소년기에 이러한 통합된 정체성을 성취하려는 시도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개인이 사회에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적응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시기에 정체성을 확립한 청소년들은 한 가지 선택한 일에 꾸준히 정진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에도 별로 동요됨이 없이 안정감을 유지하며 행동한다. 이들은 선택의 순간에 대체로 남들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으며 자기의 주관대로 결정할 수 있고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연문희, 1996)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자기탐색과정에서 혼란을 겪게 될 때, 비행 또는 범죄청소년에게서 볼 수 있

는 부정적인 정체성(negative identity)을 형성하는 경우도 나타나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볼 수 있다.

3) 자아정체성 발달론

Marcia(1966)는 Erikson의 이론을 토대로 하여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위기와 관여의 기준을 가지고 자아정체성 성취수준을 <표 1>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여기서 위기(crisis)란 개개인이 자기에게 의미 있는 선택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시기이며, 관여(Commitment)란 직업선택, 이념적 신념에 대해 무엇인가를 확실히 결정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체성 지위는 개인의 정체성 형성과정 뿐만 아니라 정체성 형성수준의 개인차를 함께 진단하고자 하는 개념으로서, 네 가지 자아정체성 성취수준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Donovan, 1975; Marcia, 1966, 1980).

표 1. 자아정체성 성취수준의 유형

성취수준 심리적상태	성취	유예	폐쇄	혼미
위기	유	유	무	무
관여	유	무	유	무

출처: Marcia J, 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J. Adelson (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159-187). New York: John Wiley.

정체성 혼미(identity diffusion)는 위기를 경험했거나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업적·이념적 방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여를 하지 못한 경우이다. 무엇에 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고 결정을 해도 다른 기회가 주어지면 쉽게 바꾸어 버리는 경우이다. 대개 위축되어 있고 시간을 규칙적으로 활용하지도 않으며 대충대충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정체성 혼미는 정체성 탐색과정의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며 그대로 방치하면 부정적 정체성으로 빠져들 위험이 있다.

정체성 폐쇄 foreclosure)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채, 바로 부모나 기타 권위에 의해 주어진 대상의 가치관을 선택의 여지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거기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과정은 초기 아동기의 동일시와 비슷하다. 이들은 정해진 틀을 잘 받아들이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동시에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융통성이 적고 비교적 경직되어 있다. 성취수준에 이를 수 있는 자기탐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외적 상황이 바뀌거나 외적 충격이 오면 의견상 유지되던 정체성이 붕괴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상태이다.

유예상태(moratorium)는 직업적, 이념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중이지만 관여에는 도달하지 못한 경우이다.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확실히 결정된 것이 없어 애매모호한 상태이다. 폐쇄수준이 매우 조용하고 침착하다면 유예상태에 있는 사람은 쾌활하고 변덕스럽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숙고, 세상에 대한 탐구에 열중하고 있는 듯하며 매우 열심히 참여하든지 아니면 전혀 참여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관여를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한다는 점이 혼미와 다르다.

정체성 성취(identity achievement)는 여러 가지 행동, 역할, 이념을 탐색해 보는 의사결정과정인 심리적 위기를 경험했으며 직업과 이념 등의 영역에서 자기만의 고유한 관여를 형성한 경우이다. 자신이 선택한 직업과 이념적 목표를 추구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로서 환경의 변화와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연하게 잘 대처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령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발달을 조사한 Fregeau & Baker(1986)에 따르면 연령이 낮을수록 정체성 혼미, 폐쇄, 유예 등이 많았고 18세에 이르면서 혼미가 감소한 반면에 정체성 성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eilman(1979)도 연령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발달을 살펴본 결과, 12~15세에서는 정체성 혼미와 폐쇄가 대부분이었고 18세에는 정체성 혼미와 폐쇄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정체성 성취와 유예가 나타났다. 21세 이후에는 정체성 혼미와 폐쇄가 더욱 줄어드는 반면 정체성 성취와 유예는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봉연(1979)의 연구에 의하면 독일 청소년의 경우는 정체성 발달이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 청소년의 경우에는 14~15세 시기에는 12~13세 시기보다 낮아졌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Marcia의 정체성 지위를 분석한 결과(김형태, 1989)에 의하면 중학생의 54%는 정체성 혼미, 23%는 폐쇄, 9%는 유예, 21%는 성취에 속하였다. 대학생은 17%가 정체성 혼미, 19%가 폐쇄, 25%가 유예, 39%가 성취지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연령이 증가하면서 정체성 성취와 유예수준으로 이동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보아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서구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정체성 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 유예나 혼미상태에 머물고 있어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Marcia의 이론에 나타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용어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위기라는 용어에서 표현되는 심리적 외상이나 위협에 직면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고도 일관된 역할에 도달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탐색이라는 말이 더욱 적합하다. 또한 한 개인이 선택해야 할 길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위기를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박아청, 1990)

둘째, 많은 연구들에서 개인을 하나의 정체성 상태로 분류해 놓고 있지만 정체성 상태내의 각 하위 영역은 동시에 똑같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한 영역은 안정적일지라도 다른 영역은 위기를 겪고 있을 수도 있다.(Matteson, 1974)

셋째, Marcia의 반구조화된 면접법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풍부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평가자간의 신뢰도 및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Grotevant & Adams, 1984)

넷째, 내용타당도의 문제이다. Erikson이 자아정체성 형성과 관련하여 부수적인 문제, 예를 들어 성의 분극화 대 양성적 혼란, 지도력 대 복종감 등을 논한 것을 볼 때, 청소년들에게 있어 성역할 정체성, 권위에 대한 관점, 그리고 이성애에 대한 친밀감 등의 영역에 관한 갈등의 해결 및 관여는 모두 정체성의 구성요인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정체성 지위면접에 있어서의 타당도는 정치, 종교, 직업 외에도 몇 가지 다른 영역에서의 위기와 관여에 관한 적절한 질문들을 추가시킴으로써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Bourne, 1978)

요약해 보면, 정체성은 청소년기에 확립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기를 비롯하여 성인기에도 계속적으로 정체성 형성과정이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체성 위기는 항상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정체성 성취수준에 있는 사람이 미래에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정체성 위기는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가운데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현상이며 이러한 위기의 해결정도인 자아정체성수준은 그 이후의 발달과업에도 예기적인 형태로 자아정체성 정립에 기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5. 여가활동과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자아정체성은 개인의 내면속에 잠재해 있는 다른 측면의 정체성을 탐색해본다는 측면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다. 이런 관점에서 여가활동은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나서 내재화할 수 있는 수단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다(Beth & Douglas, 2000).

자유시간과 여가활동은 청소년의 하루 시간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가활동 참여는 자아정체성과정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확실하다.

Kleiber, Larson & Csikszentmihayli(1986)에 따르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도움이 되는 자유시간 활동으로는 도전심, 노력, 집중을 수반하는 것들이라 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종류의 활동이 아이들의 놀이에서 성인의 일로 전환하는 틈(gap)을 연결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전환적인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스포츠가 육체적 정신적 도전심을 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집단과의 동일시 혹은 경쟁성에 기초한 정체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발달에 기여한다. 특히 경제 발달과 더불어 신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스포츠 차원의 여가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박상욱, 1998)

Kleiber & Roberts(1990)는 자아정체성척도를 이용하여 스포츠 활동 참가와 자아정체성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밝혀냈다. 그러나 남자 대학생 선수들을 조사한 연구결과에서, 선수들과 선수가 아닌 집단들과 비교할 때 선수들이 더 낮은 수준의 자아 발달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좁은 범위의 경험만을 함으로써 정체성 폐쇄가 발생할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취미활동이나 음악 감상과 같은 자유시간 활동은 이런 활동들이 이 활동 자체에 관여적이고 도전심을 제공하며 노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다. Larson(1994)은 취미활동뿐만 아니라 수련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비행행동에 대한 저항심을 심어주는데 도모한다는 점에서 자아정체성에 이득이 된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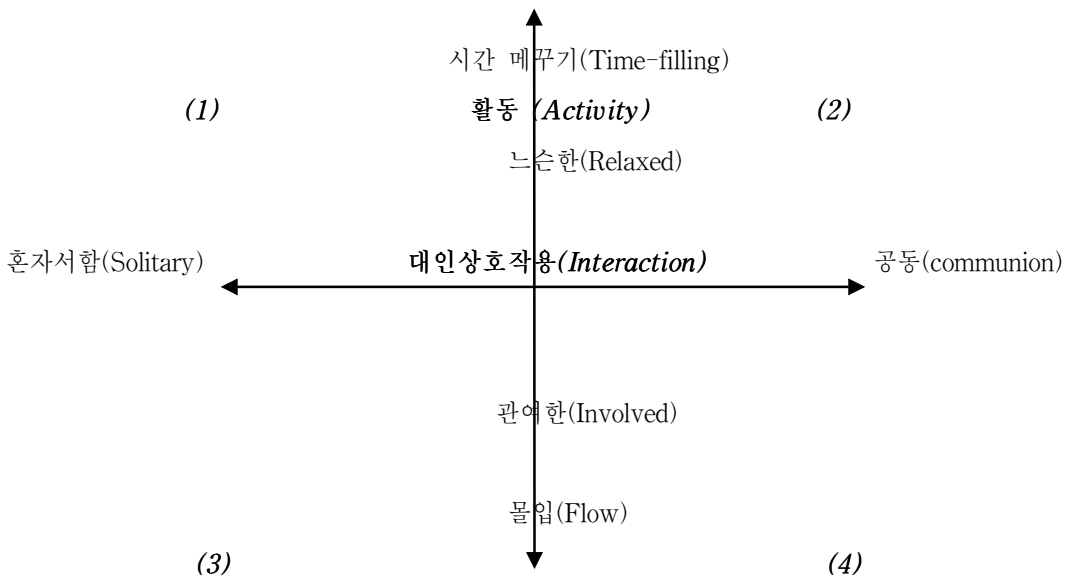
또한 음악은 청소년들 자신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외부세계에 대한 그들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자아정체성과 동년배집단과의 유대감 형성에 기여한다.(Adrian, David & Susan, 2000)

반면 TV시청은 이것이 도전심이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자아정체성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다.(Kubey & Csikszentmihayli, 1990) 비록 TV가 성인의 역할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지만 제공된 이미지들은 스테레오타입으로 제한되어지고 TV를 시청하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보고 있는 것과 상호 작용하거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사교활동 등의 사회적 활동은 청소년들의 자유시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자아정체성 확립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유대감을 도모하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으로 기대된다.

1) 여가활동과 발달적 상황(*developmental cruc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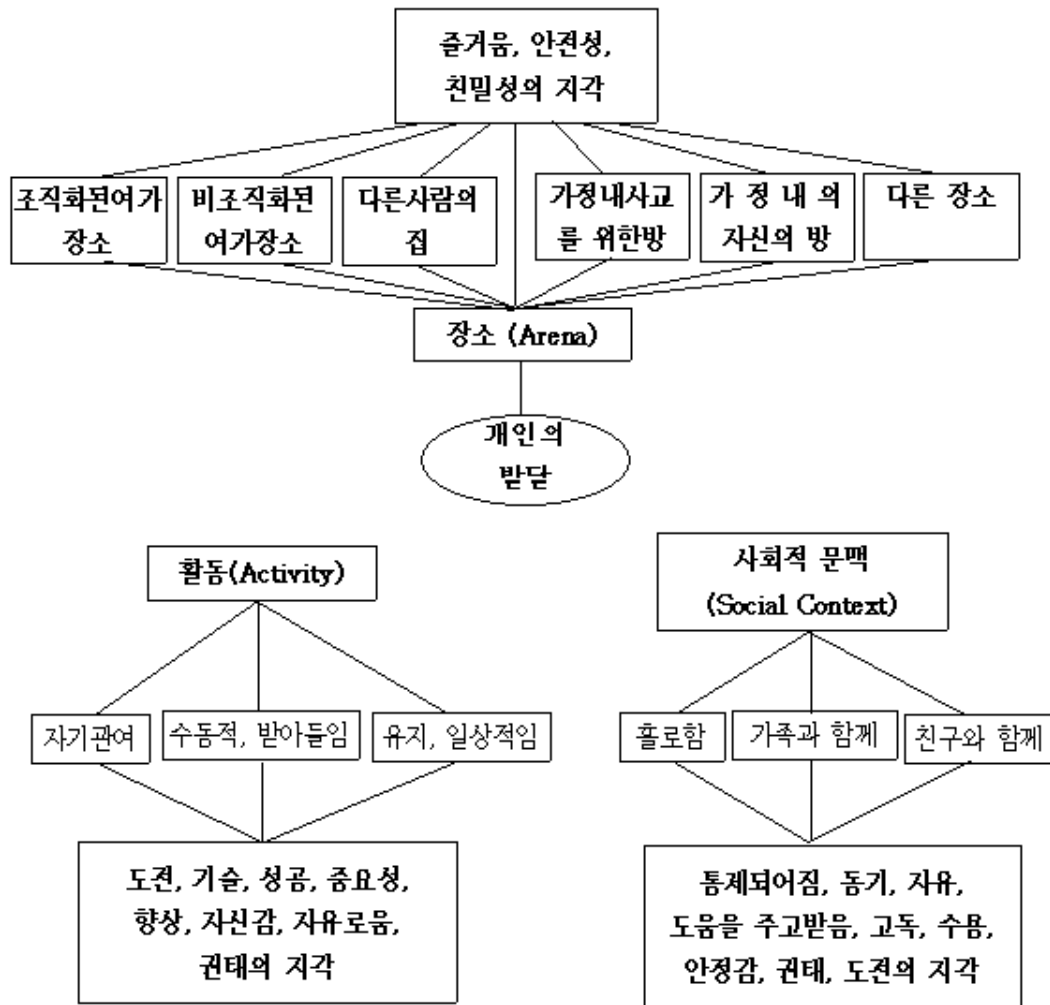
여가가 다양한 이유 중의 하나는 강도(intensity) 때문이다. 활동 그 자체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모두에 있어 관여(involved)의 강도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어떤 여가활동에서 사회적 대인 상호작용은 클 수 있지만 그 활동은 단지 한 배경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활동이 중심이 되고 대인 상호작용은 단지 도구적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으로 제시된 여가의 강도가 (그림 4)에서 나타난다.



자료: John R. K(1985).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s."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1, 148-150.

그림 4. 여가의 강도(*Intensity of leisure experience*)

첫째, 'Doubly casual'류의 여가활동은 활동관여정도와 상호작용성의 강도가 낮은 것으로 TV시청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여가활동은 비용이 적게 들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고 회복하고자하는데 그 가치를 들고 있다. 둘째, 'Social intense'류의 여가활동은 활동관여정도는 낮지만 상호작용성의 강도는 높다. 사교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이러한 유형의 특성을 볼 수 있다.



자료: Reidar, S & Diane M. S (1998). "Involvement in and Perception of the Free Time Context for Adolescents in Youth Protection institutions," *Leisure Studies*, 17, 210.

그림 5. 청소년 자유시간에 있어 활동, 장소, 사회적 문맥의 세 가지 주요 차원

세 번째 'Activity intense'의 여가활동은 활동관여정도는 높은 반면 상호작용성은 낮다. 미술작품을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음악그룹에 있는 활동, 독서는 이러한 패턴을 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Doubly intense'의 여가활동은 활동참여정도와 상호작용성 모두 높다. 이것은 춤을 개발하고 연습하거나 스포츠에서 계획된 공격을 하는 것과 같은 주고받는 형식의 여가활동이다.

이것은 여가시간이 활동(activity), 사회적 문맥(social context), 장소(area)와의 관여를 수반한다는 Reidar & Diane 의 연구와 관련이 있다. 그들은 개인의 발달에 있어 이 세 가지 요소가 상호작용 하는데 개인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여기에는 개인이 이 세 가지 차원에 부여한 의미와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5)는 이 세 가지 요소의 중요한 특징들을 묘사하고 있다.

2) 자아정체성의 영향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정체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지만 가정의 심리적 환경 변인이 정체성 발달에 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Cross & Allen, 1970; Marcia, 1980; Wareman, 1982) 먼저 가정의 심리적 환경 중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민주적인 부모는 자녀들의 의사결정에 지지를 보내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함으로써 독립심을 키운다. 독재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격려하지 않으며, 허용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의 독자적인 행동을 받아들이지만 이에 준하는 책임감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런 세 유형의 부모 양육태도와 자아정체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et al., 1987: 249-260; Bernard, 1981: 349-358; Enright et al., 1980: 529-546) 다시 말해서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수용과 애정의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함으로써 가치 있는 자아정체성의 발달을 강화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애정과 대화의 결핍 등으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은 정체성 형성을 위한 가능성을 제대로 탐구하지 못하여 자살이나 약물남용 혹은 공격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dams et al., 1987: 249-260; Kerfoot, 1980: 335-346; Gantman, 1978:429-440).

부모의 양육방식 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도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즉 자녀의 개성과 가족간의 유대관계를 동시에 존중하는 가정 분위기가 정체성 발달을 촉진한다.(Carlson et al., 1990; Cooper & Grotevant, 1989) Blos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 형성과정에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는 부모가 자녀를 퇴행으로 이끄는 것인데 이는 부모들이 너무 과도하게 자녀를 보호함으로써 자녀들이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집에서만 찾고자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Campbell et al., 1984) 다시 말해서 가족구성원들이 서로 애정을 나누고 수용하는 적절한 유대감과 개별화에 대한 지원이 균형을 이룰 때 정체성은 형성될 수 있다.(Grotevant, 1983; Sabetell &

Mazor, 1985; Weinmann & Newcombe, 1990)

부모들이 대략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합리적 이유를 제시하며 자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정환경은 청소년의 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가족내의 갈등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갈등과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사회적 대인관계 상황에서 긍정적 해결능력이 낮고 공격성이 높게 나타났다.(Robertson & Simmons, 1989) 또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에 대한 지각내용을 비교한 Lavoie(1976)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정체성수준이 높은 남학생은 부모에게서 심한 통제를 받지 않고 부모로부터 칭찬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Adams 와 Jones(1983)의 연구에서도 정체성 성취에 있는 여학생들은 어머니의 친애적 태도와 아버지의 공정한 처벌에 대한 지각에서 매우 높은 점수를 보고하였다. 또한 정체성 발달수준이 높은 여학생들은 부모로부터 통제를 적게 받았고, 여러 문제를 부모와 자유롭게 토론하는 가정 분위기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Lernet & Hultsch, 1983) 이런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자아정체성의 형성은 따뜻한 가정 분위기와 지원적인 부모의 행동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에게 수용되지 못한 경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적어지고 의심이 생기며 무엇이나 마음 놓고 탐색하지 못한 결과로 자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아정체성의 성취를 이루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환경 변인 외에 학교환경 변인들도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Clair와 Day(1979)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정체성의 성취, 유예, 폐쇄 등의 위치에 있는 청소년들이 흥미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 비해 학업성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Orlofsky(1978) 연구에서도 성취와 유예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이 성취동기에 있어 흥미나 폐쇄상태에 있는 대학생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며 흥미나 폐쇄상태에 있는 대학생들은 정체성 성취나 유예상태에 있는 학생들에 비해 자신의 지적능력이 낮다고 지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Marcia와 Friedman(1970)도 자아정체성의 성취상태에 있는 여자대학생들이 보다 어려운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김형태(1989)도 학교생활 중에서 학과활동에 대한 흥미, 태도 및 학습습관과 친구관계의 영역 등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이런 결과로 보아 학교환경 변인들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서구 청소년들에 비해 자아정체성수준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많은 청소년들이 정체성 유예나 흥미상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기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인 자아 정체성을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변인 등이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6. 공존지수와 사회공존지수

1) 공존지수 (*Network Quotient*)

많은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소위 3연(緣)이라고 하는 학연, 혈연, 지연을 거론한다. 그 영향력은 상층부로 올라갈수록 커진다. 이렇다 보니 잘못되는 모든 일을 자신의 능력부족으로 돌리기보다는 타인 및 주위환경의 탓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앞으로 자신의 성공을 결정짓는 요인은 연줄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공존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회에서의 성공지름길이라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박영배 2003)

NQ는 “나만 잘하면 성공한다.”는 식이 아니라 “너와 나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이 진정 성공하는 것”이라는 21세기 네트워크시대의 정신이 기저에 깔려있다. 순전히 개인의 능력만이 강조되는 IQ(지능지수)와 EQ(감성지수)의 시대는 끝나 가고 있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네트워크’란 그물망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원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중계회선에 의해 조직된 전국적인 방송 조직과 방송망’을 일컫는 용어로 쓰였다. 그러던 것이 컴퓨터가 보급되고 나서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연결된 망 즉, 컴퓨터네트워크를 줄여서 네트워크라 부르게 되었다. 이런 방송 용어 또는 컴퓨터 용어를 사회과학계가 받아들여 새롭게 나타난 특정한 인간관계에 적용시켰다. 그래서 탄생된 것이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개념이다.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는 종래의 계층적 조직과는 달리

- 1) 조직과 조직 사이 또는 조직 내부의 구성원들이 모두 대등한 입장이고,
- 2) 결합의 조건이 좀더 유연하며,
- 3)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도 약하거나 유동적이고
- 4) 정보와 자원을 더 자유롭게 교환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네트워크란 용어를 마치 ‘인간관계’ 자체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바르지 않다. 예를 들어 좋은 가문에서 자라서 힘센 친척이 많은 사람을 “그 친구는 네트워크가 좋아”라고 말하는 경우는 분명 올바르지 않은 사용법이다. 혈연 조직은 수직적인 계층조직이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으므로 유한한 결합이 아니다. 더구나 핏줄이 다른 사람에게는 개방되어 있지 않은 폐쇄

적인 조직이어서 네트워크 조직으로 부를 수 없다. 따라서 '혈연 네트워크'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또 구성원들의 관계가 평등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창회나 군대나 마피아도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유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들이다.

인맥관리나 처세술을 가르치는 많은 책들에서 '인맥'을 그대로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옳바르지 않다. 도움을 줄 수 있는 친척이나 학교 선배를 많이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인맥이 좋은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과 친척, 선배 사이의 인맥은 참된 의미의 네트워크가 아니다. 그것은 계층적인 관례일뿐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결합관계가 열려 있지 않고 고정적이기 때문이다.(김무곤, 2003)

NQ(Network Quotient:공존지수)란 이 새로운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잘살기 위해 갖추어야 할 공존의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NQ는 '힘'과 '줄'을 잘 잡아야 성공한다는 처세술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2) 사회공존지수(Social Network Quotient)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로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조직원리가 '연줄'형에서 '네트워크'형으로 바뀌어야만 지금까지 '줄과 힘 만능주의'나 'IQ지상주의'처럼 우리나라를 짓눌렀던 속박이 깨지고 그동안 합리적인 까닭도 없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사회는 위에서 말한 대로 종래의 혈연이나 계층적 조직보다 개방적이라서 가입과 탈퇴가 훨씬 자유롭고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도 대등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혈연처럼 강하지도 않다. 이처럼 네트워크는 유대가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정성껏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네트워크는 방치하면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이것을 만들고, 유지하고, 강화하고, 변화시키는 방법을 새로 익혀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NQ다. 우리가 NQ를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사회도 잘되고 개인도 잘되는 공존 공생의 길이 열릴 수 있다. 먼저 사람에게 다가서고 먼저 자기 것을 내어주면 언젠가는 큰 힘이 되어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NQ의 힘이다. 사회에서 성공하고, 리더가 되고 싶다면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 아무런 조건없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배려하면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스스로의 가치도 올라간다. 이것이 NQ의 철학이다. NQ는 개인 중심의 성공에 집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서로의 성공을 도모하는 21세기의 새로운 행복론이다.(김무곤, 2003)

NQ는 처세술과는 다르다. 처세술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NQ는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도구이며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늠하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NQ에서는 적극적인 봉사활동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등 주변사람들에게 정성을 다하고, 자신을 낮춰 남을 배려한다는 점에서 '행복지수'라 불리기도하며, 이로인해 형성되는 인간관계로 유용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야 한다.

네트워크 시대에 자신을 낮추고 타인을 위하는 생활이, 자신의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다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본 연구자는 사회공존지수(Social Network Quotient)로 정의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런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하여 청소년축제참여의 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에서는 2004년 8월 여수국제청소년축제에 참여한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표집방법은 무작위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음악, 댄스, 게임, 분야에 각각 참가한 250명과 비참가자 250명으로 총 500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에 훈련된 조사원이 대상자에게 직접 설문목적과 내용 및 응답시 유의할 사항을 설명한 뒤 각 설문 문항에 대하여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작성, 회수하였다. 이 가운데 응답이 부실하거나 조사내용의 일부가 누락된 표본을 제외한 421(84.2%)부 만을 유효 표본으로 얻었다.

2. 연구절차

1) 연구일정

- | | | | | |
|-------------------|---|-----------|---|-----------|
| (1) 계획 및 문헌연구 | ; | 2004. 5. | ~ | 2004. 6. |
| (2) 선행연구 및 자료수집 | ; | 2004. 7. | ~ | 2004. 8. |
| (3) 연구 대상자 선정 | ; | 2004. 8. | ~ | 2004. 8. |
| (4) 설문지 작성 및 예비조사 | ; | 2004. 9. | ~ | 2004. 10. |
| (5) 설문지 배부 및 회수 | ; | 2004. 10. | ~ | 2004. 10. |
| (6)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 ; | 2004. 11. | ~ | 2004. 12. |

2) 연구절차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축제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를 토대로 예비설문을 작성하였으며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거쳐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자료처리 및 통계분석 작업을 거쳐 연구의 가설을 검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절차는 (그림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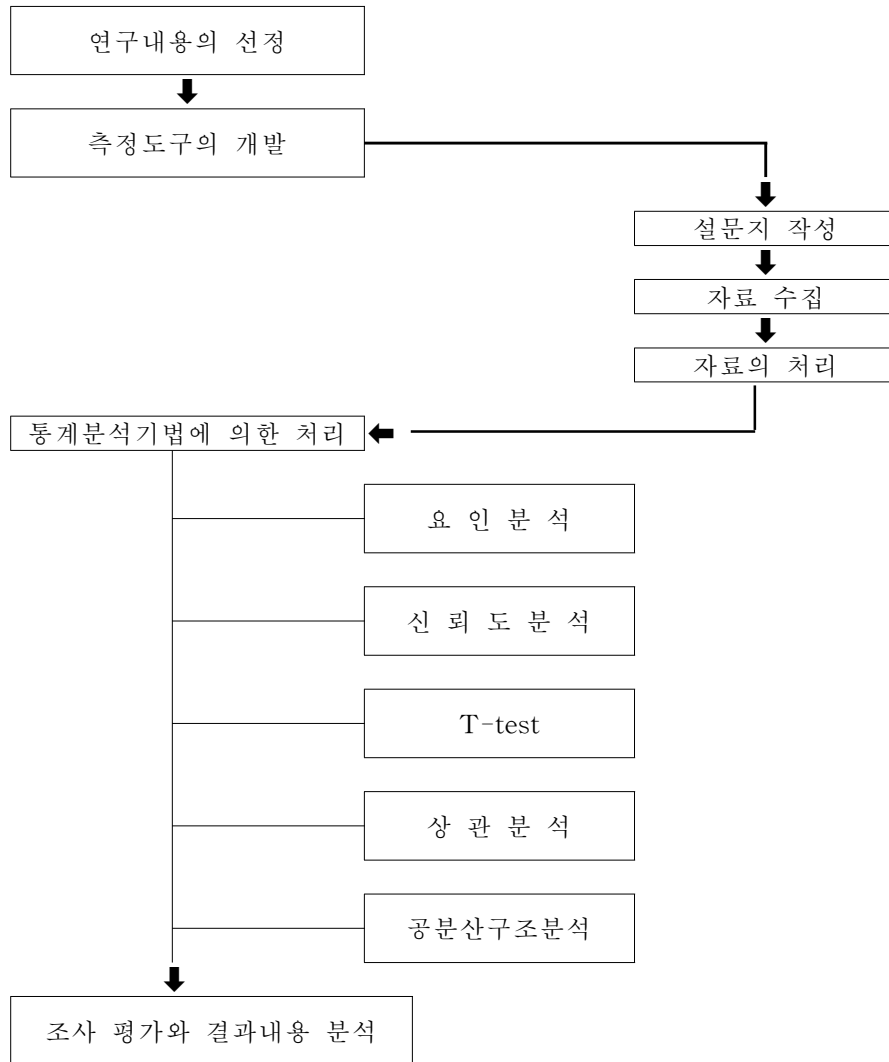


그림 6. 연구 절차

3. 조사도구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이미 설문지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여 사용되었던 Reidak & Diane(1998), 박아청(1996), 김무곤(2003)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항목을 연구목적에 적합하도록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배경변인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6개 항목 24문항, 독립변인인 청소년 축제참여에 대한 감정적 견해 4개 항목 17문항,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감정적 견해 3개 항목 15문항, 종속변인인 자아정체성 6개 항목 36문항, 사회공존지수 6개 항목 51문항 등 총 14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주요 구성지표 및 내용과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지표 및 내용

구성지표	구 성 내 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특성	성별, 학년, 참여정도, 참여유무, 참여만족, 부모동의	6
청소년 축제 참여에 대한 감정적 견해	자기개발, 자신감, 긴장완화, 의무감	11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는 감정적 견해	타인의식, 일원감(소속감), 독립감	9
자아정체성 요인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20
사회공존지수 요인	네트워크 마인드, 네트워크 자본, 네트워크 배려, 네트워크 자질, 네트워크 유지, 네트워크 확장	20
총 문 항 수		66

2)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

채서일(1994)에 의하면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정확히 측정하였는가를 말한다고 지적하면서 그 평가방법에 따라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 기준관련 타당도(criterion related

validity), 구성 타당도(construct validity) 세 종류의 타당도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성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탐색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통하여 검증한 후 LISREL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으로 설문문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구성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에 관심을 두고 논리적인 분석과 이론적 체제 하에서 가설적 개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적합성에 의해 결정된다.

신뢰도는 각 요인별 문항간 내적 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1) 탐색요인분석에 의한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 사용될 청소년축제참가에 대한 감정적 견해,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 자아정체성, 사회공존지수에 대한 요인을 탐색요인분석으로 타당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직각회전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축제참가시의 감정적 견해에 대한 직각회전요인분석

문항		자기개발요인	긴장완화요인	자신감요인	의무감요인
자기개발	자기개발	.838	.231	.015	.016
	정신적향상	.797	.231	.117	.142
	창의적	.740	.078	.161	-.119
	학업	.724	.344	.129	.155
긴장완화	긴장해소	.241	.885	.134	-.011
	스트레스해소	.217	.869	.137	-.087
	신명	.276	.828	.205	.065
자신감	기술우수	.076	.156	.912	.084
	활동우수	.205	.187	.876	.031
의무감	어쩔수없는활동	-.132	-.286	.068	.783
	하지않으면안됨	.258	.267	.049	.759
Eigen value(고유치)		4.580	1.435	1.360	1.025
Pct of var		41.638	13.048	12.367	9.322
Cum pct(누적%)		41.638	54.685	67.052	76.374

측제참가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요인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표 3>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총 11개의 변수들을 같은 개념 군끼리 뚜렷하게 분류함과 동시에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 고유치(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재구성 해 본 결과 4개의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고유치는 최고 4.58부터 1.025까지 나타났고, 4개의 요인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76.37%로 나타났다.

이상의 요인분석 결과로 비추어 볼 때, 측정도구에 있어서의 구성 타당도를 확보하였다.

표 4.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는 감정적 견해에 대한 직각회전요인분석

문항		독립감요인	일원감요인	타인의식요인
독립감	불편함	.892	-.118	.017
	도움안됨	.856	-.094	.132
	혼자	.842	-.059	.160
	지루함	.823	-.107	.041
일원감 (소속감)	일원화	-.128	.854	.107
	소속감	-.124	.806	.072
	안정감	-.043	.765	-.119
타인의식	불편함	.156	-.126	.842
	혼자가나옴	.067	.163	.803
Eigen value(고유치)		3.345	1.879	1.236
Pct of var		37.161	20.883	13.730
Cum pct(누적%)		37.161	58.045	71.774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요인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표 4>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총 9개의 변수들을 같은 개념 군끼리 뚜렷하게 분류함과 동시에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 고유치(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재구성 해 본 결과 3개의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고유치는 최고 3.35부터 1.24까지 나타났고, 3개의 요인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71.77%로 나타났다.

표 5. 자아정체성에 대한 직각회전요인분석

문항	친밀성요인	목표지향성 요인	미래확신성 요인	주도성요인	주체성요인	자기수용성 요인
친밀성	불편함	.835	.141	.125	.110	.030
	만남을꺼림	.830	.186	.033	.010	.058
	나서기두려움	.768	.149	.064	.100	.114
	두려움	.724	-.033	.170	.327	.127
목표지 향성	물두하지못함	.202	.800	.190	.236	.088
	실행하지못함	.182	.752	.243	.139	.118
	오래가지못함	.027	.746	.130	.225	.091
	시간을허비	.084	.728	-.002	-.022	.085
미래확 신성	스스로모름	.115	.128	.871	.123	.080
	지속성없음	.117	.084	.866	.121	.166
	직업결정못함	.101	.276	.741	.039	.038
주도성	결단력부족	.010	.160	.038	.828	.104
	따라가는편	.173	.142	.118	.820	.041
	결정못함	.266	.177	.124	.722	.051
주체성	스스로	.108	.125	.048	.088	.898
	일처리원활	-.026	.059	.100	.012	.841
	스스로처리	.229	.156	.119	.109	.730
자기수 용성	허무함	.207	.015	.083	.045	-.032
	살지않음	.054	.151	.202	.187	.088
	무존재감	.235	.109	.228	.141	.107
Eigen value(고유치)	6.347	1.975	1.768	1.692	1.436	1.177
Pct of var	31.736	9.873	8.838	8.461	7.179	5.887
Cum pct(누적%)	31.736	41.609	50.448	58.908	66.087	71.974

자아정체성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표 5>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총 20개의 변수들을 같은 개념 군끼리 뚜렷하게 분류함과 동시에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 고유치(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재구성 해 본 결과 6개의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고유치는 최고 6.35부터 1.18까지 나타났고, 6개의 요인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71.97%로 나타났다.

표 6. 공존지수에 대한 직각회전요인분석

	문항	자본요인	확장요인	자질요인	배려요인	유지요인	마인드요인
자본	기원	.831	.122	.232	.063	.121	.043
	고민상담	.809	.030	.168	.068	.219	.091
	바람	.808	.127	.162	.069	.076	.097
	부탁	.802	.069	.159	.167	.146	.027
확장	연구회	.028	.835	-.023	.212	.086	.097
	취미모임	.031	.823	.085	.188	.133	.068
	이메일리스트	.280	.727	.095	-.017	.195	.049
자질	감사의인사	.234	-.035	.820	.114	.024	.057
	엘리베이터	.266	-.021	.775	.171	.176	.029
	보답	.173	.248	.708	.152	.076	.147
배려	회식	.030	.194	.100	.812	.103	.115
	여행	.242	.078	.074	.804	.118	.095
	음식메뉴희생	.062	.143	.354	.708	.169	-.044
유지	생일기억	.220	.049	.151	.076	.771	.087
	식사계산	.168	.117	-.002	.173	.748	-.075
	선물	.082	.269	.115	.111	.718	.134
마인드	칭찬	.035	.068	.050	.116	-.091	.831
	은혜	.160	.118	.126	.021	.244	.741
Eigen value(고유치)		5.690	2.064	1.543	1.277	1.118	1.018
Pct of var		31.690	11.464	8.575	7.093	6.214	5.653
Cum pct(누적%)		31.690	43.073	51.648	58.741	64.954	70.607

공존지수 요인에 대한 구성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표 6>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총 24개의 변수들을 같은 개념 군끼리 뚜렷하게 분류함과 동시에 변수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요인분석기법 중 요인간 상호독립성을 강조하는 varimax 직각회전방식을 이용, 고유치(eigen value) 1.0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을 재구성 해 본 결과 6개의 요인이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의 고유치는 최고 5.69부터 1.02까지 나타났고, 6개의 요인이 전체변수를 설명하는 비율은 70.61%로 나타났다.

(2) 설문지의 신뢰도

설문조사에서 비체계적이고 임의적인 오차를 유발할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자의 인지적 경험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는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설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Cronbach's α 는 문항 하나 하나를 독립된 별개의 검사로 간주하여 검사 문항간의 동질성 정도에 의한 신뢰도 추정치인 문항간 내적 합치도를 구하는 신뢰도 검사방법 중의 하나이다(채서일, 1994: 181-183).

즉 설문지는 측정도구의 안정성(stability) 및 일관성(consistency)과 관계 있으며, 조작된 정의나 지표가 측정의 대상을 일관성 있고 믿을 만하게 측정되었는가의 문제이다. 이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각 변인의 문항간 신뢰도는 자기개발 요인 $\alpha=.833$, 자신감 요인 $\alpha=.830$, 긴장완화 요인 $\alpha=.905$, 일원감 요인 $\alpha=.782$, 독립감 요인 $\alpha=.904$, 주체성 요인 $\alpha=.803$, 자기수용성 요인 $\alpha=.757$, 미래확신성 요인 $\alpha=.853$, 목표지향성 요인 $\alpha=.819$, 주도성 요인 $\alpha=.798$, 친밀성 요인 $\alpha=.835$, 네트워크 자본 요인 $\alpha=.880$, 네트워크 유지요인 $\alpha=.713$, 네트워크 배려 요인 $\alpha=.776$, 네트워크 자질 요인 $\alpha=.765$, 네트워크 확장요인 $\alpha=.784$ 로 모든 부분의 요인들이 강한 응집력을 갖고 있어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표 7. 구성요인의 신뢰도 검증

<i>Item</i>	<i>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i>	<i>Squared Multiple Correlation</i>	<i>Alpha If Item Deleted</i>
자기개발	자기개발	.545	.301
	정신적향상	.716	.525
	창의적	.729	.548
	학업	.667	.465
자기개발요인		$\alpha = .833$	Standardized item alpha= .833
자신감	기술우수	.714	.509
	활동우수	.714	.509
자신감요인		$\alpha = .830$	Standardized item alpha= .833
긴장완화	긴장해소	.845	.725
	스트레스해소	.767	.590
	신명	.821	.698
긴장완화요인		$\alpha = .905$	Standardized item alpha= .905
의무감	어쩔수없는활동	.784	.734
	하지않으면안됨	.597	.437
의무감요인		$\alpha = .632$	Standardized item alpha= .634
타인의식	불편함	.621	.393
	혼자가나옴	.619	.393
타인의식요인		$\alpha = .569$	Standardized item alpha= .569
일원감 (소속감)	일원화	.676	.480
	소속감	.617	.428
	안정감	.517	.278
일원감요인		$\alpha = .782$	Standardized item alpha= .782
독립감	불편함	.792	.645
	도움안됨	.766	.601
	혼자	.757	.586
	지루함	.749	.586
독립감요인		$\alpha = .904$	tandardized item alpha= .905
주체성	스스로	.593	.420
	일처리원활	.772	.597
	스스로처리	.597	.437
주체성요인		$\alpha = .803$	Standardized item alpha= .807
자기수용성	허무함	.578	.338
	살지않음	.564	.322
	무존재감	.619	.393
자기수용성요인		$\alpha = .757$	Standardized item alpha= .757
미래확신성	스스로모름	.758	.642
	지속성없음	.801	.676
	직업결정못함	.621	.393
미래확신성요인		$\alpha = .853$	Standardized item alpha= .852

<i>Item</i>	<i>Corrected Item Total correlation</i>	<i>Squared Multiple Correlation</i>	<i>Alpha If Item Deleted</i>	
목표지 향상	몰두하지못함	.595	.411	.793
	실행하지못함	.771	.605	.709
	오래가지못함	.685	.499	.751
	시간을허비	.521	.299	.825
목표지향성요인		$\alpha = .819$	Standardized item alpha= .819	
주도성	결단력부족	.579	.350	.787
	따라가는편	.715	.516	.642
	결정못함	.635	.436	.731
주도성요인		$\alpha = .798$	Standardized item alpha= .797	
친밀성	불편함	.717	.532	.803
	만남을꺼림	.737	.553	.795
	나서기두려움	.684	.470	.817
	두려움	.640	.410	.836
친밀성요인		$\alpha = .835$	Standardized item alpha= .835	
네트워크 마인드	칭찬	.331	.109	
	은혜	.331	.109	
네트워크마인드요인		$\alpha = .495$	Standardized item alpha= .497	
네트워크 자본	기원	.715	.577	.857
	고민상담	.767	.632	.836
	바람	.754	.603	.842
	부탁	.732	.576	.850
네트워크자본요인		$\alpha = .880$	Standardized item alpha= .881	
네트워크 유지	생일기억	.539	.292	.614
	식사계산	.556	.310	.592
	선물	.504	.254	.658
네트워크유지요인		$\alpha = .713$	Standardized item alpha= .713	
네트워크 배려	회식	.591	.350	.719
	여행	.614	.379	.695
	음식메뉴희생	.629	.396	.677
네트워크려요인		$\alpha = .776$	Standardized item alpha= .776	
네트워크 자질	감사의인사	.622	.402	.656
	엘리베이터	.643	.420	.631
	보답	.533	.285	.753
네트워크자질요인		$\alpha = .765$	Standardized item alpha= .764	
네트워크 확장	연구회	.538	.290	.793
	취미모임	.673	.473	.650
	이메일리스트	.662	.464	.662
네트워크확장요인		$\alpha = .784$	Standardized item alpha= .782	

(3) LISREL을 이용한 확인요인분석

구성타당도가 검증된 설문문항은 다시 척도의 정제(scale refinement)를 위하여 LISREL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에 의한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측정치의 적재치가 0.4이상이므로 각 측정치는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확인요인분석

	자기개발	자신감	긴장완화	의무감	타인의식	일원감	독립감
자기개발	0.656(12.278)						
정신적향상	0.893(18.657)						
창의적	1.000						
학업중요	0.852(17.123)						
자신감		1.000					
기술우수		0.753(15.563)					
활동우수							
긴장완화			0.994(30.238)				
스트레스			0.946(24.855)				
완화			1.000				
신명							
의무감				1.000			
피치못한				0.846(22.94)			
활동							
의무							
타인의식					0.808(7.200)		
불편함					1.000		
혼자가							
나옴							
일원감						0.753(10.829)	
일원화						1.000	
(소속							
소속감							
안정감						0.972(14.653)	
독립감							0.886(21.296)
불편함							0.867(23.427)
도움안됨							1.000
혼자							0.950(24.562)
지루함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주체성	스스로	0.885(16.059)					
	일처리원활	0.886(22.283)					
	스스로처리	0.848(16.589)					
자기수용성	허무함		0.753(16.162)				
	살지않음		0.765(17.309)				
	무존재감		0.806(17.659)				
미래확신성	스스로모름			0.846(22.943)			
	지속성없음			1.000			
	직업결정못함			0.752(19.644)			
목표지향성	물두하지못함				0.797(19.045)		
	실행하지못함				1.000		
	오래가지못함				0.942(24.198)		
	시간을허비				0.669(16.400)		
주도성	결단력부족					0.704(14.399)	
	따라가는편					1.000	
	결정못함					0.727(16.229)	
친밀성	불편함						0.982(22.510)
	만남을꺼림						0.910(23.137)
	나서기두려움						1.000
	두려움						0.908(22.937)

(4)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분석

<표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LISREL에서 분석할 잠재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모든 구성개념들의 관계가 모두 정(+)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잠재변수들간의 관계의 방향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집계변수간의 상관관계

행표	표준편차	자기계발	자신감	긴장완화	타인의의무감	타인의의식	일원감	독립감	주체성	자기수	미래확실성	응성	실정	향성	목표지	메트릭					
																코파일	코파일	코파일	코파일		
자기개발	14.19	3.393	1	.317	.536	.124	.065	.375	.233	.213	.111	.144	.195	.098	.307	.251	.271	.350	.337	.276	.381
자신감	6.87	1.964	.317	1	.372	.133	.189	.247	.062	.362	.080	.101	.170	.033	.139	.346	.201	.199	.040	.044	.203
긴장완화	10.42	3.086	.536	.372	1	.001	.059	.414	.171	.216	.097	.091	.166	.078	.138	.259	.421	.400	.349	.300	.371
의무감	5.21	1.799	.124	.133	.001	1	.071	.007	.262	.081	.258	.090	.036	.136	.023	.152	.019	.012	.062	.109	.105
타인의의식	5.86	1.685	.065	.189	.059	.071	1	.029	.226	.184	.193	.193	.172	.219	.159	.010	.131	.166	.014	.070	.063
일원감	10.46	2.328	.375	.247	.414	.007	.029	1	.226	.373	.188	.194	.123	.098	.235	.210	.393	.276	.263	.335	.092
독립감	9.33	3.838	.233	.062	.171	.262	.226	.226	1	.125	.433	.343	.173	.207	.409	.095	.304	.051	.138	.341	.054
주체성	11.23	2.127	.213	.362	.216	.081	.184	.373	.125	1	.200	.265	.293	.220	.258	.317	.317	.194	.147	.276	.136
자기수용성	10.44	2.510	.111	.080	.097	.258	.193	.188	.433	.200	1	.435	.295	.358	.414	.017	.348	.105	.109	.249	.033
미래확실성	9.50	2.948	.144	.101	.091	.090	.193	.194	.343	.265	.435	1	.402	.304	.315	.101	.303	.029	.141	.217	.078
목표지향성	11.58	3.230	.195	.170	.166	.036	.172	.123	.173	.293	.295	.402	1	.409	.347	.013	.200	.112	.232	.121	.134
주도성	9.79	2.489	.098	.033	.078	.136	.219	.098	.207	.220	.358	.304	.409	1	.388	.031	.335	.156	.198	.180	.151
친밀성	13.51	3.555	.307	.139	.138	.023	.159	.235	.409	.258	.414	.315	.347	.388	1	.081	.291	.067	.249	.286	.116
네트워킹마인드	7.26	1.648	.251	.346	.259	.152	.010	.210	.095	.317	.017	.101	.013	.031	.081	1	.236	.203	.216	.246	.244
네트워킹자본	15.33	3.631	.271	.201	.421	.019	.131	.393	.304	.317	.348	.303	.200	.335	.291	.236	1	.406	.317	.502	.277
네트워킹유지	9.90	2.779	.350	.199	.400	.012	.166	.276	.051	.194	.105	.029	.112	.156	.067	.203	.406	1	.364	.311	.385
네트워킹배려	10.22	2.502	.337	.040	.349	.062	.014	.263	.138	.147	.109	.141	.232	.198	.249	.216	.317	.364	1	.421	.364
네트워킹자질	10.89	2.412	.276	.044	.300	.109	.070	.335	.341	.267	.249	.217	.121	.180	.286	.246	.502	.311	.421	1	.215
네트워킹활장	9.49	2.984	.381	.203	.371	.105	.063	.092	.054	.136	.033	.078	.134	.151	.116	.244	.277	.385	.364	.215	1

4. 자료처리 및 통계방법

본 연구의 주된 의도는 청소년의 축제참가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문지의 응답 결과를 기입한 자료를 회수한 후 응답 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를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SPSS 12.0.1 packag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자료분석의 목적에 따라 처리하였다. 구체적인 자료처리 및 통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은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 관련 변인에 대하여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LISREL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으로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감정적 견해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 관련 변인의 각 요인별 문항간 내적일관성을 측정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청소년 축제 참가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청소년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축제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2004년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얻은 자료를 T-test와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1.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검증

청소년들의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10>과 같이 나타났다.

표 10.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검증

		Group Statistics					
축제 참여유무		N	Mean	Std. Deviation	t	df	Sig.
주체성	참여	216	11.46	2.203	2.292	419	.022*
	비참여	205	10.99	2.021			
자기수용	참여	216	10.79	2.593	3.004	419	.003***
	비참여	205	10.06	2.368			
미래확신	참여	216	9.78	3.054	1.965	419	.050*
	비참여	205	9.21	2.812			
목표지향	참여	216	11.75	3.519	1.081	419	.280
	비참여	205	11.40	2.891			
주도성	참여	216	10.11	2.327	2.710	419	.007**
	비참여	205	9.45	2.613			
친밀성	참여	216	13.88	3.929	2.168	419	.031*
	비참여	205	13.13	3.076			

*P<.05 **P<.01 ***P<.001

축제참여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체성, 자기수용, 미래확신, 주도성, 친밀성요인에서는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전 항목에서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하여 자아정체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축제참여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목표지향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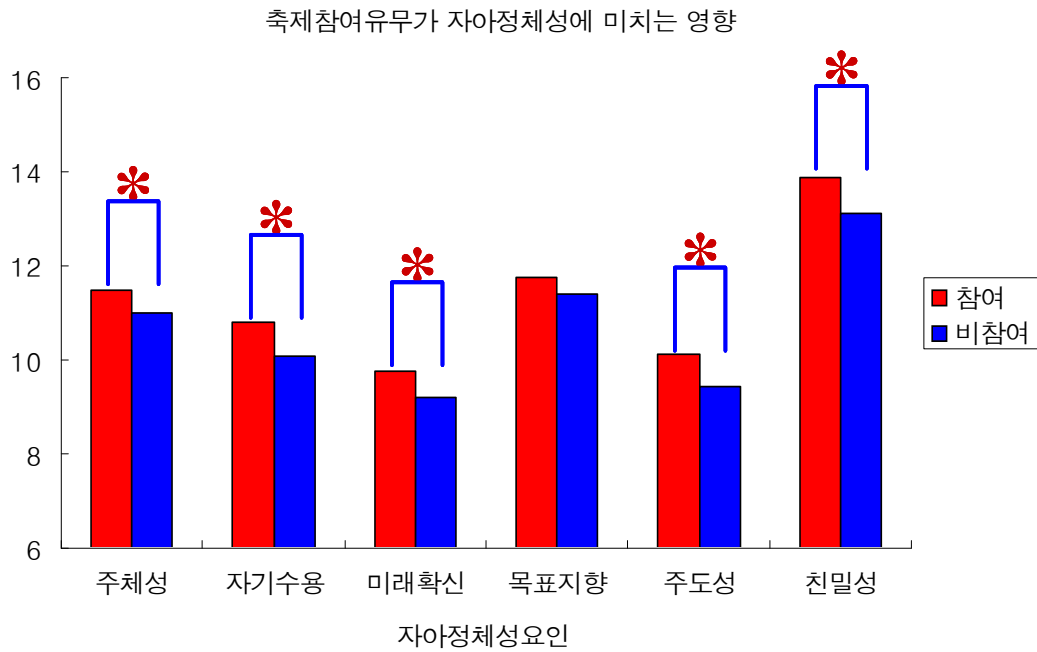


그림 7. 축제참여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 검증

이는 조학래(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축제참여는 아니지만 타인과의 접촉을 유발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참여자가 비참여자보다 자아정체성 발달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성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소정(2001)의 ‘청소년기 여가활동과 자아정체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하는 연구로 여가활동 즉 취미활동과 스포츠 및 건강활동이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등의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축제참여는 자아정체성을 함양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목표지향성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으로써 청소년기의 신체적 발달과 함께 동반되어야 할 자아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청소년들의 축제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조학래(1996)는 자원봉사활동 경험의 영향이 6개월 이후에도 지속되는지를 알아본 결과 자아

정체성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자원봉사활동 경험으로 인한 자아정체성의 발달 수준이 6개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6개월 혹은 1년 후에 동일한 대상에게 자아정체성정도를 파악함으로써 축제참여 후에도 자아정체성 발달 수준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지 후속연구에서 밝힐 필요성이 있다.

2.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사회공존지수의 차이검증

청소년들의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사회공존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표 1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1.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사회공존지수의 차이검증

축제 참여유무		N	Mean	Std. Deviation	t	df	Sig. (2-tailed)
마인드	참여	216	7.40	1.443	1.844	419	.066
	비참여	205	7.11	1.831	1.833		
자본	참여	216	16.74	3.014	8.877	419	.000***
	비참여	205	13.85	3.643	8.834		
유지	참여	216	10.86	2.437	7.738	419	.000***
	비참여	205	8.89	2.767	7.713		
배려	참여	216	10.68	2.520	3.915	419	.000***
	비참여	205	9.74	2.397	3.920		
자질	참여	216	11.41	2.183	4.665	419	.000***
	비참여	205	10.34	2.522	4.648		
확장	참여	216	10.28	2.901	5.831	419	.000***
	비참여	205	8.65	2.843	5.835		

*P<.05 **P<.01 ***P<.001

축제참여 유무에 따른 사회공존지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자본, 네트워크 유지, 네트워크 배려, 네트워크 자질, 네트워크 확장 요인에서는 5%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전 항목에서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하여 사회공존지수가 높게 나타나 축제참여는 청소년들의 사회공존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인드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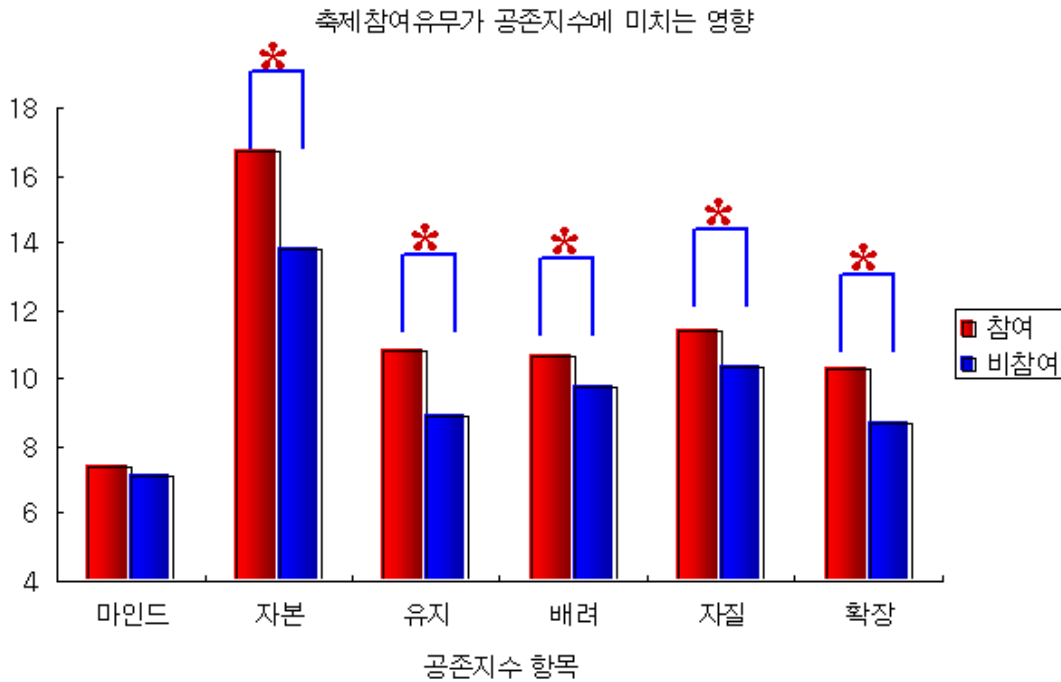


그림 8. 측제참여 유무에 따른 공존지수의 차이 검증

이러한 연구결과는 김무곤(200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그는 ‘혼자 노는 백로보다 함께 노는 까마귀가 낫다’로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만이 특별하고 다른 아이들과는 어딘가 달라 보이는 마음에 자기 아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과는 놀지 못하게 한다거나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이의 정상적인 공존의식을 가지는데 방해가 되고 오히려 공존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사람을 너무 경계하고, 자기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아이는 꼭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차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김무곤(2003)은 “친구 조심하라”는 말보다는 “좋은 친구 많이 만나라”고 해주는 것이 아이의 공존지수 향상에 더욱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부모가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아이는 겁만 많아지고 ‘겁’과 ‘공존지수(NQ)’는 반비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아이들의 ‘공존지수(NQ)’는 부모손에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좋은 어른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아이에게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후원자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른 아이의 후원자가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공존지수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이 연구에서는 축제참여 유무에 따라 네트워크 마인드를 제외한 전 항목에 걸쳐서 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하여 높은 공존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축제참여가 청소년들의 '공존지수'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결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공존지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축제의 장으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3.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들의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구조모형은 잠재외생변인인 축제참여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가 잠재내생변인인 자아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관계구조모형이다.

이러한 잠재변수(latent variables)들 간의 인과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model)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잠재 외생변인인 축제참여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요인이 잠재내생변인인 자아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관계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이 얼마나 예측력을 갖고 있는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 이론 경로간의 추정계수를 살펴보기에 앞서 전체 구성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LISREL에 있어서 적합도 평가는 본 연구의 표본자료의 특성과 이론적 특성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에 대한 적합도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구조 모형의 전체적인 적합도가 높게 나타나면 예측력 또한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모델의 전반적 적합도를 평가하는 지표로는 χ^2 검증법, 기초 적합지수(GFI: goodness of fit index), 조정 적합지수(AGFI: adjusted goodness of fit index), 표준 적합지수(NFI: normd fit index)분석 등이 있다(Schumacker & Lomax, 1996: 121). 본 연구에서는 위의 네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설정한 구조 모형의 적합도 검증을 위한 전반적 지수는 <표 12>와 같다.

표 12. 구조모형에 대한 전반적 지수

전반적 지수	χ^2	df	P	χ^2/df	RMR	GFI	AGFI	NFI
구조모형	2970.02	419	.000	7.088	0.0893	0.903	0.681	0.846

전반적 지수로서 χ^2 검증은 모형이 현실 자료에 잘 맞지 않을 때 그 유의함을 강하게 보여 주는 지수로서 영가설을 긍정했을 경우 주어진 모형은 자료에 잘 맞으며, 자료에 의하여 확실하게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산출 상관계수와 경험적 상관계수의 차이를 무시해도 좋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반대가설이 채택되었을 경우 주어진 모형은 자료에 잘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산출 상관계수와 경험적 상관계수의 차이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로 χ^2 에 의한 모형 적합도는 P값이 0.05이상일 때 만족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표 12>의 결과에 의하면 $\chi^2=2970.02$, 확률치는 .000으로서 영가설(구조모형과 관측치간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이 기각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낮은 χ^2 의 확률치는 χ^2 의 특성상 표집수가 크면 클수록 받아 들여야 할 영가설(null hypothesis)을 부정하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즉, 모형과 관측자료의 공분산계수가 큰 차이가 없이 잘 부합됨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자의 표집수가 크면 조그만 차이에도 민감하게 작용하여 χ^2 값이 커지며 확률치가 높아짐으로써 영가설을 기각하는 통계적 결정을 내리게 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χ^2 검증 이외의 또 다른 전반적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χ^2/df 는 χ^2 를 자유도로 나눈 것으로서 검증이 지니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적합도 검증 방법의 하나이다. 이창현(1993)에 의하면 χ^2/df 의 값이 5 이하이면 모형의 적합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χ^2/df 의 값이 7.088로서 모형의 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 적합지수(GFI)는 이론모형을 표본자료가 설명해주는 상대적인 공분산의 크기로서 회귀분석에서의 결정계수(R²) 값과 유사하다. 조현철(1999: 113-114)은 여러 외국학자들의 주장을 예를 들면서 기초 적합지수의 값이 .90이상이면 모형에 큰 문제가 없으며, .95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기초 적합지수는 0.903으로서 모형의 적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적합지수(AGFI)는 회귀분석의 수정 결정계수(adjusted R²)와 유사하게 해석된다. <표 12>에서 제시된 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의 조정 적합지수는 0.681로서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RMR은 0.5이하이면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0.0893로 나타나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에 나타난 것처럼 구조모형은 자료에 대체적으로 부합되는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구조모형의 각 측정 척도가 전체 모형의 부합과정에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 모형에서 사용된 외생변인과 내생변인의 추정치를 살펴보았다. <표 13>은 구조모형에서 사용된 외생 측정 변인의 표준치와 측정오차이다.

표 13. 외생 측정변인의 표준치와 측정 오차

구성개념/측정척도		표준치(λ)	측정오차(δ)	
측제 참여시의 감정적 견해	자기개발	자신개발	0.656	0.053
		정신적향상	0.893	0.048
		창의적	1.0	
	자신감	학업	0.852	0.050
		기술우수	1.0	0.070
		활동우수	0.752	0.048
	긴장완화	긴장해소	0.994	0.033
		스트레스해소	0.946	0.033
		신명	1.0	
	의무감	어쩔수없는활동	1.0	
하지않으면안됨		0.945	0.034	
타인과의 상호 작용시 감정적견해	타인의식	불편함	0.808	0.112
		혼자편리	1.0	
	일원감	일원화	0.753	0.069
		소속감	1.0	
		안정감	0.972	0.066
	독립감	불편함	0.886	0.040
		도움안됨	0.867	0.037
		혼자	1.0	
지루함		0.950	0.039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정된 구조모형에서 사용된 외생 측정 변인의 표준치와 측정 오차는 모든 척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측정치가 전체 구조모형에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외생 측정 변인의 추정치 중 ‘창의적’, ‘기술우수’, ‘신명’, ‘어쩔 수 없는 활동’, ‘혼자편리’, ‘소속감’, ‘혼자’은 포화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표준치를 1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상의 외생측정 변인간의 추정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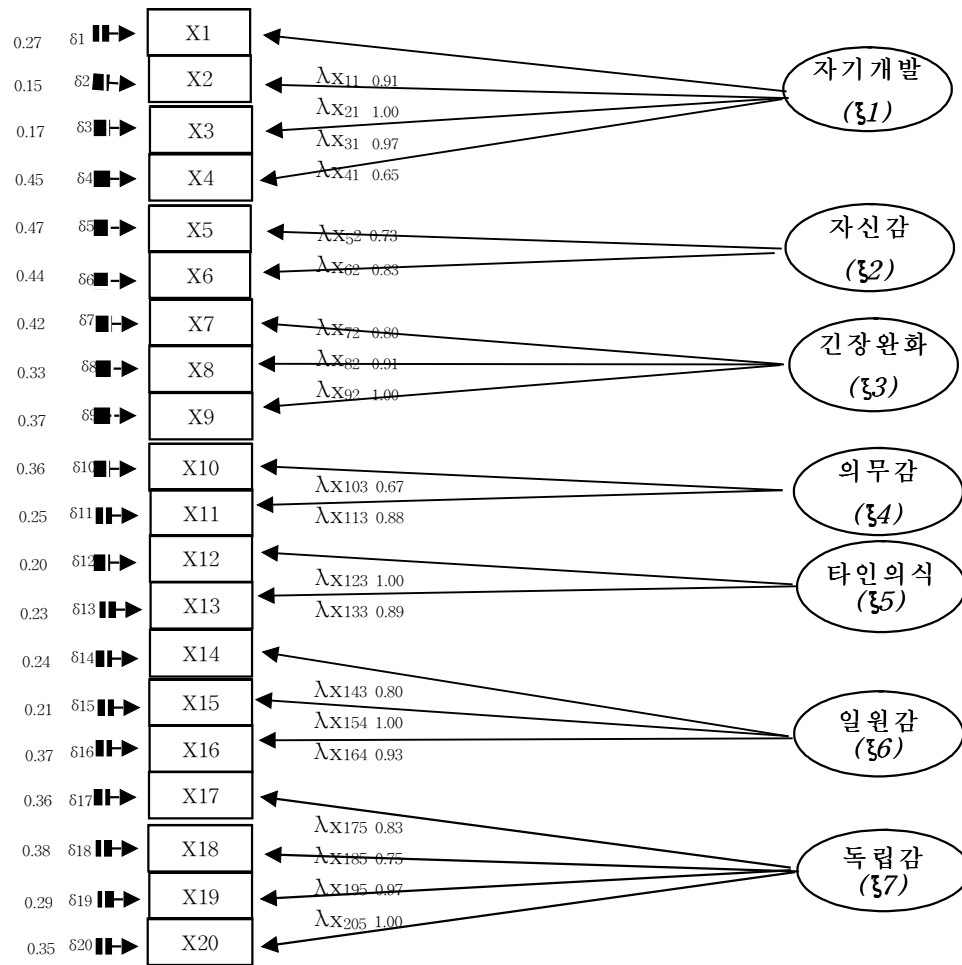


그림 9. 외생측정변인의 측정모형과 계수측정

<표 14>는 구조모형에서 사용된 내생 측정변인의 표준치와 측정오차이다.

표 14. 내생 측정변인의 표준치와 측정오차

		구성개념/측정척도	표준치(λ)	측정오차(ϵ)
자아 정체감	주체성	스스로일함	0.885	0.055
		일처리원활	1.0	
		스스로처리	0.848	0.051
	자기수용성	허무함	0.753	0.047
		살지않음	0.765	0.044
		무존재감	1.0	
	미래확신성	스스로모름	0.846	0.037
		지속성없음	1.0	
		직업결정못함	0.752	0.038
	목표지향성	몰두하지못함	0.797	0.042
		실행하지못함	1.0	
		오래가지못함	0.942	0.039
		시간을허비	0.669	0.039
	주도성	결단력부족	0.704	0.049
		따라가는편	1.0	
		결정못함	0.727	0.045
	친밀성	불편함	0.982	0.044
		만남을꺼림	0.910	0.039
		나서기두려움	1.0	
		두려움	0.908	0.040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생 측정 변인의 표준치와 측정 오차는 모든 척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측정치가 전체 구조모형에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내생 측정 변인의 추정치 중 ‘일처리 잘함’, ‘무존재감’, ‘지속성 없음’, ‘실행하지 못함’, ‘따라가는 편’, ‘나서기 두려움’은 포화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표준치를 1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지 않았다. 이상의 내생 측정 변인간의 추정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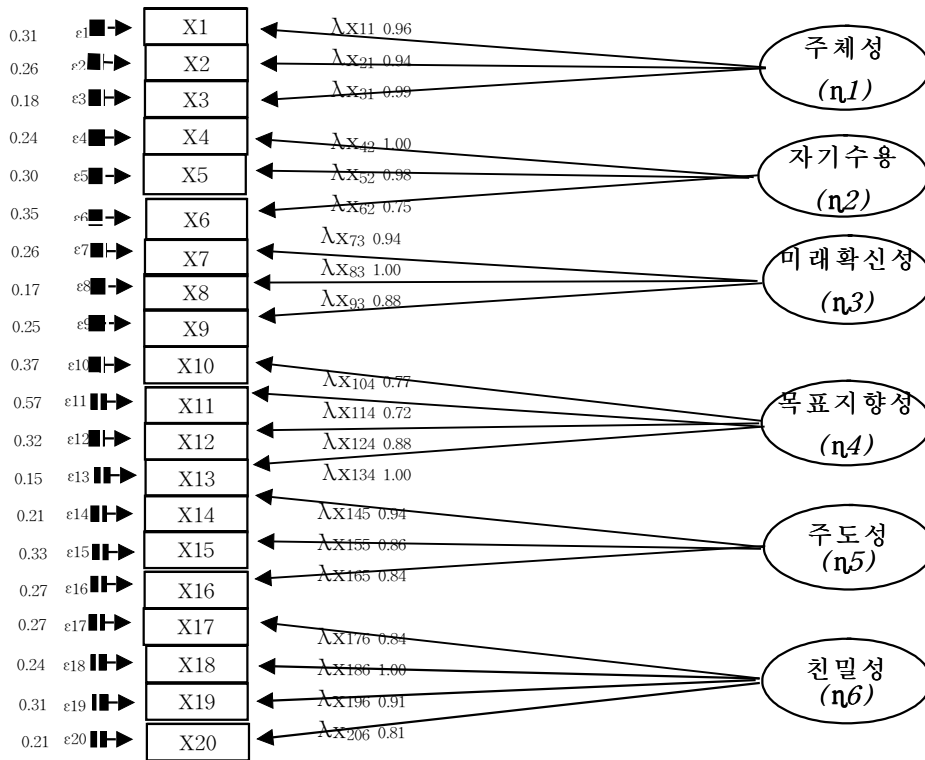


그림 10. 내생측정변인의 측정모형과 계수측정

2) 구조모형의 경로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조 모형은 외생변인에서 내생변인으로 가는 경로(γ matrix) 42개의 이론 경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구조모형에서 제시한 각 구성개념들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중심으로 구조 모형의 경로를 검증하고자 한다.

측제참여에 따른 감정적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견해가 자아정체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규명하기 위하여 이론 모형에서 설정한 외생변인 \rightarrow 내생변인의 경로계수(γ)를 분석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 구조모형의 γ 및 β 경로 추정치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 값
H1	자기개발 → 주체성(γ_{11})	-0.066	0.036	-1.851
H2	자기개발 → 자기수용성(γ_{21})	-0.059	0.023	-2.517
H3	자기개발 → 미래확신성(γ_{31})	-0.168	0.033	-5.005
H4	자기개발 → 목표지향성(γ_{41})	0.055	0.023	2.401
H5	자기개발 → 주도성(γ_{51})	0.060	0.019	3.114
H6	자기개발 → 친밀성(γ_{61})	-0.116	0.028	-4.123
H7	자신감 → 주체성(γ_{12})	0.224	0.069	3.241
H8	자신감 → 자기수용성(γ_{22})	0.194	0.045	4.297
H9	자신감 → 미래확신성(γ_{32})	-0.006	0.065	-0.095
H10	자신감 → 목표지향성(γ_{42})	0.059	0.044	1.349
H11	자신감 → 주도성(γ_{52})	-0.059	0.037	-1.588
H12	자신감 → 친밀성(γ_{62})	0.626	0.054	11.571
H13	긴장완화 → 주체성(γ_{13})	-0.291	0.063	-4.630
H14	긴장완화 → 자기수용성(γ_{23})	0.141	0.041	3.431
H15	긴장완화 → 미래확신성(γ_{33})	-0.124	0.059	-2.115
H16	긴장완화 → 목표지향성(γ_{43})	0.044	0.040	1.099
H17	긴장완화 → 주도성(γ_{53})	0.152	0.034	4.481
H18	긴장완화 → 친밀성(γ_{63})	-0.133	0.049	-2.696
H19	의무감 → 주체성(γ_{14})	0.124	0.057	2.167
H20	의무감 → 자기수용성(γ_{14})	-0.170	0.037	-4.534
H21	의무감 → 미래확신성(γ_{34})	-0.005	0.054	-0.095
H22	의무감 → 목표지향성(γ_{44})	-0.139	0.037	-3.796
H23	의무감 → 주도성(γ_{54})	-0.147	0.031	-4.759
H24	의무감 → 친밀성(γ_{64})	0.153	0.045	3.414
H25	타인의식 → 주체성(γ_{15})	-0.122	0.047	-2.614
H26	타인의식 → 자기수용성(γ_{25})	0.291	0.030	9.581
H27	타인의식 → 미래확신성(γ_{35})	0.181	0.043	4.170
H28	타인의식 → 목표지향성(γ_{45})	0.251	0.030	8.471
H29	타인의식 → 주도성(γ_{55})	0.125	0.025	4.990
H30	타인의식 → 친밀성(γ_{65})	-0.174	0.036	-4.766
H31	일원감 → 주체성(γ_{16})	0.221	0.051	4.327
H32	일원감 → 자기수용성(γ_{26})	-0.306	0.033	-9.200
H33	일원감 → 미래확신성(γ_{36})	-0.164	0.048	-3.455
H34	일원감 → 목표지향성(γ_{46})	-0.308	0.033	-9.470
H35	일원감 → 주도성(γ_{56})	-0.161	0.028	-5.846
H36	일원감 → 친밀성(γ_{66})	0.175	0.040	4.372
H37	독립감 → 주체성(γ_{17})	0.349	0.043	8.130
H38	독립감 → 자기수용성(γ_{27})	-0.100	0.028	-3.579
H39	독립감 → 미래확신성(γ_{37})	0.039	0.040	0.984
H40	독립감 → 목표지향성(γ_{47})	-0.073	0.027	-2.653
H41	독립감 → 주도성(γ_{57})	-0.109	0.023	-4.685
H42	독립감 → 친밀성(γ_{67})	0.121	0.034	3.586

H: hypothesis(가설)

3)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발(ξ1), 자신감(ξ2), 긴장완화(ξ3), 의무감(ξ4)으로 구성된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가 독특성(η1), 자기수용성(η2), 미래확신성(η3), 목표지향성(η4), 주도성(η5), 친밀성(η6)으로 구성된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기개발(ξ1)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자기개발(ξ1)과 자기수용성(η2)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21} 의 t값은 2.517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미래확신성(η3)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31} 의 t값은 -5.005로서 95%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목표지향성(η4)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41} 의 t값은 2.401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도성(η5)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51} 의 t값은 3.114로서 95%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친밀성(η6)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61} 의 t값은 -4.123로서 95%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주체성(η1)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11} 의 t값이 -1.851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신개발, 정신적향상, 창의적, 학업 등으로 측정된 자기개발(ξ1)은 허무함, 살지 않음, 무존재감 등으로 측정된 자기수용성(η2), 스스로 몰음, 지속성 없음, 직업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미래확신성(η3), 몰두 못함, 실행 못함, 오래못함, 시간 허비 등으로 측정된 목표지향성(η4), 결단력부족, 따라가는 편, 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주도성(η5), 불편함, 만남 꺼림, 나서기 두려움, 두려움 등으로 측정된 친밀성(η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체성(η1)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소정(2001)의 ‘청소년기 여가활동과 자아정체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그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여가활동 참여에 따른 타인에 대한 감정적 견해 중 자기개발은 자아정체성 요인 중 자기수용성과 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을 제외한 전 항목에 자기개발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문화축제참여에 따른 타인에 대한 감정적 견해 중 자기

개발은 자아정체성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자신감(ξ2)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자신감(ξ2)과 주체성(η1)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12의 t값은 3.241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η2)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22의 t값은 4.297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친밀성(η6)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62의 t값은 11.571로서 95%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확신성(η3)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32의 t값은 -0.095, 목표지향성(η4)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42의 t값은 1.349, 주도성(η5)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52의 t값은 -1.588로서 95%의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우수, 활동우수 등으로 측정된 자신감(ξ1)은 스스로 일함, 일처리 원활, 스스로 처리 등으로 측정된 주체성(η1), 허무함, 살지 않음, 무존재감 등으로 측정된 자기수용성(η2), 불편함, 만남 꺼림, 나서기 두려움, 두려움 등으로 측정된 친밀성(η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스로 몰음, 지속성 없음, 직업 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미래확신성(η3), 몰두 못함, 실행 못함, 오래못함, 시간 허비 등으로 측정된 목표지향성(η4), 결단력부족, 따라 가는 편, 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주도성(η5)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소정(2001)의 연구에서는 자신감이 주체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감의 5가지 항목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적으로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문화축제참여에 따른 타인에 대한 감정적 견해 중 자신감은 자아정체성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문화축제에 참여할 때 타인과의 만남에서 가지는 자신감이 자아정체성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긴장완화(ξ3)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긴장완화(ξ3)와 주체성(η1)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13의 t값은 -4.630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η2)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23의 t값은 3.431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미래확신성(η3)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33의 t값은 -2.115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도성(η5)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53의 t값은 4.481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친밀성(η6)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63의 t값은 -2.696으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지향성(η4)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43의 t값은 1.099로서 95%의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긴장해소, 스트레스해소, 신명 등으로 측정된 긴장완화(ξ3)는 스스로 일함, 일 처리 원활, 스스로처리 등으로 측정된 주체성(η1), 허무함, 살지않음, 무존재감 등으로 측정된 자기수용성(η2), 스스로 몰음, 지속성 없음, 직업 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미래확신성(η3), 결단력부족, 따라가는 편, 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주도성(η5), 그리고 불편함, 만남 꺼림, 나서기 두려움, 두려움 등으로 측정된 친밀성(η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몰두 못함, 실행 못함, 오래 못함, 시간 허비 등으로 측정된 목표지향성(η4)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소정(2001)의 연구에서는 긴장완화가 자아정체성 요인의 전 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긴장완화가 목표지향성을 제외한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주도성, 친밀감의 모든 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화축제참여에 따른 타인에 대한 감정적 견해 중 긴장완화는 자아정체성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문화축제와 같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가지는 스트레스해소, 신명, 긴장해소 등은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주도성,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주 문화축제에 참여하게 함이 스트레스해소와 신명나는 시간과 긴장해소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의무감(ξ4)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의무감(ξ4)과 주체성(η1)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14의 t값은 2.167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η2)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24의 t값은 -4.534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목표지향성(η4)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44의 t값은 -3.796로서 95%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도성(η5)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54의 t값은 -4.759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친밀성(η6)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64의 t값은 3.414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확신성(η3)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34의 t값은 -0.095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활동, 하지 않으면 안됨 등으로 측정된 의무감(ξ4)은 스스로 일함, 일 처리 원활, 스스로처리 등으로 측정된 주체성(η1), 허무함, 살지 않음, 무존재감 등으로 측정된 자기수용성(η2), 몰두 못함, 실행 못함, 오래못함, 시간 허비 등으로 측정된 목표지향성(η4), 결단력부족, 따라가는 편, 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주도성(η5), 그리고 불편함, 만남 꺼림, 나서기 두려움, 두려움 등으로 측정된 친밀성(η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스로 몰음, 지속성 없음, 직업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미래확신성(η3)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의 문화축제참여에 따른 타인에 대한 감정적 견해 중 타인의식은 자아정체성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소년들이 문화축제와 같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의무감이 주체성, 자기수용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주 문화축제에 참여하게 함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타인의식(ξ5), 일원감(ξ6), 독립감(ξ7)으로 구성된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가 주체성(η1), 자기수용성(η2), 미래확신성(η3), 목표지향성(η4), 주도성(η5), 친밀성(η6)으로 구성된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타인의식(ξ5)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타인의식(ξ5)과 주체성(η1)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15} 의 t값은 -2.614, 자기수용성(η2)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25} 의 t값은 9.581, 미래확신성(η3)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35} 의 t값은 4.1705, 목표지향성(η4)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45} 의 t값은 8.471, 주도성(η5)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55} 의 t값은 4.990, 친밀성(η6)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_{65} 의 t값은 -4.766으로서 전항목에 걸쳐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불편함, 혼자 등으로 측정된 타인의식(ξ4)은 스스로 일함, 일처리 원활, 스스로처리 등으로 측정된 주체성(η1), 허무함, 살지 않음, 무존재감 등으로 측정된 자기수용성(η2), 스스로 몰음, 지속성 없음, 직업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미래확신성(η3), 몰두 못함, 실행 못함, 오래못함, 시간 허비 등으로 측정된 목표지향성(η4), 결단력부족, 따라가는 편, 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주도성(η5), 그리고 불편함, 만남 꺼림, 나서기 두려움, 두려움 등으로 측정된 친밀성(η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소정(2001)의 연구에서는 타인과의 접촉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 중 타인의식이 주체성, 자기수용성, 주도성,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표지향성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주도성, 친밀성 등 전 항목에 걸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과의 접촉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 중 타인의식이 자아정체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문화축제와 같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가지는 적당한 타인의식은 자아정체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문화축제를 적극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2) 일원감(소속감)(ξ6)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일원감(소속감)(ξ6)과 주체성(η1)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16의 t값은 4.327, 자기수용성(η2)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26의 t값은 -9.200, 미래확신성(η3)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36의 t값은 -3.455, 목표지향성(η6)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46의 t값은 -9.470, 주도성(η5)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56의 t값은 -5.846, 친밀성(η6)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66의 t값은 4.372로서 전항목에 걸쳐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일원화, 소속감, 안정감 등으로 측정된 일원감(ξ6)은 스스로 일함, 일처리 원활, 스스로처리 등으로 측정된 주체성(η1), 허무함, 살지 않음, 무존재감 등으로 측정된 자기수용성(η2), 스스로 몰음, 지속성 없음, 직업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미래확신성(η3), 몰두 못함, 실행 못함, 오래못함, 시간 허비 등으로 측정된 목표지향성(η4), 결단력부족, 따라가는 편, 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주도성(η5), 그리고 불편함, 만남 꺼림, 나서기 두려움, 두려움 등으로 측정된 친밀성(η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소정(2001)의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접촉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 중 일원감이 전항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원화, 소속감, 안정감으로 측정된 일원감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접촉시 발생하는 소속감이나 안정적 마음과 일원화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문화축제와 같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가지는 바람직한 소속감이나 일원감 형성은 자아정체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문화축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독립감(ξ7)이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독립감(ξ7)과 주체성(η1)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17의 t값은 8.130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기수용성(η2)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27의 t값은 -3.579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목표지향성(η4)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γ47의 t값은 -2.653으로서 95%의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주도성(η5)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57의 t값은 -4.685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고, 친밀성(η6)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67의 t값은 3.586으로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래확신성(η3)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γ37의 t값은 0.984로 95%의 신뢰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움안됨, 불편함, 혼자, 지루함 등으로 측정된 독립감(ξ7)은 스스로 일함, 일처리원활, 스스로처리 등으로 측정된 주체성(η1), 허무함, 살지않음, 무존재감 등으로 측정된 자기수용성(η2), 몰두 못함, 실행 못함, 오래못함, 시간 허비 등으로 측정된 목표지향성(η4), 결단력부족, 따라가는 편, 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주도성(η5), 그리고 불편함, 만남 꺼림, 나서기 두려움, 두려움 등으로 측정된 친밀성(η6)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스스로 몰음, 지속성 없음, 직업결정 못함 등으로 측정된 미래확신성(η3)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소정(2001)의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 타인과의 접촉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 중 독립감은 주체성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안됨, 불편함, 혼자, 지루함 등으로 측정된 독립감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과의 접촉시 발생하는 독립감이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문화축제와 같은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가지는 독립감 형성은 자아정체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문화축제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자기개발, 자신감, 긴장완화, 의무감으로 측정된 축제참여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와 타인의식, 일원감, 독립감으로 측정된 타인과의 접촉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는 자아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축제참여에 따른 청소년들의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를 경로모형으로 표현한다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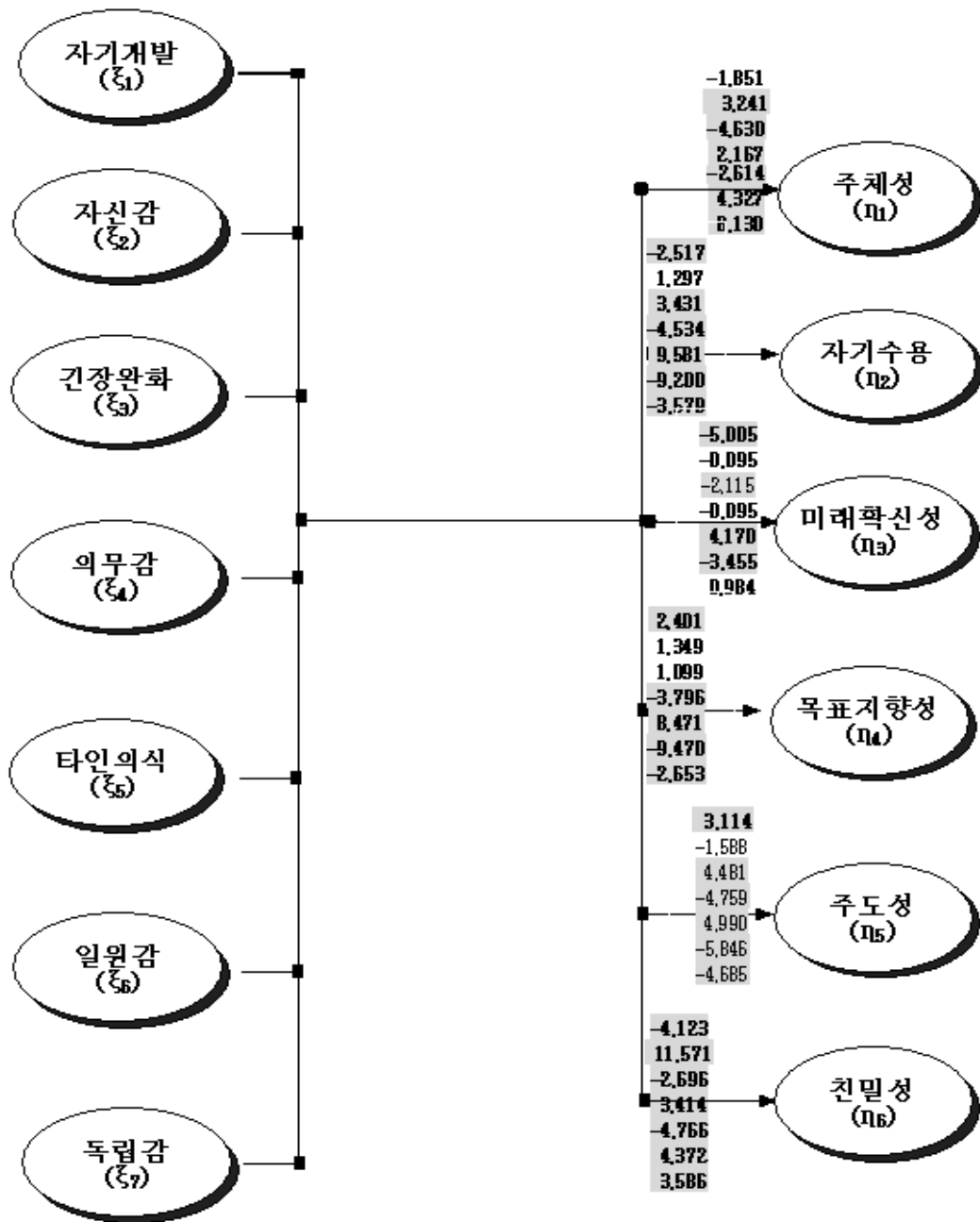


그림 11.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전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2004년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에 참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제참여유무에 따라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의 표집방법은 무작위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문화축제참여자 250명과 비참여자 250명으로 총 500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작성은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작성,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421(84.2%)부 만을 유효 표본으로 얻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1 package 통계프로그램과 LISREL 8.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성 타당성 검증은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LISREL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으로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 구조분석을 실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축제참여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체성, 자기수용, 미래확신, 주도성, 친밀성요인에서는 축제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하여 높은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지향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축제참여 유무에 따른 사회공존지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자본, 네트워크 유지, 네트워크 배려, 네트워크 자질, 네트워크 확장 요인에서는 축제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사회공존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인드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의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자기개발, 자신감, 긴장완화, 의무감)는 자아정체성(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청소년들의 감정적 견해(타인의식, 일원감, 독립감)는 자아정체성(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문화축제참여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문화축제참여를 통한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문화축제참여를 통한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참여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 참여자간의 복잡 다양한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와 관련하여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점 및 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1) 본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청소년들의 축제참여 관련변인으로 한정하였다. 그러나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다양한 관련변인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기에 축제참여 관련 변인 이외에 보다 더 추가적인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 2) 이후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간의 관계에 있어서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 3) 공존지수에 관한 연구는 다소있으나, 사회공존지수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며 최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연구 분야이다. 특히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포츠문화 향상과 스포츠의 사회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사회공존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와 사회공존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고영복, 김종선(1980). 청소년의 여가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국무총리기획조정실.
- 곽형식 외(200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 형설출판사
- 구태익(2000). 한국 청소년 수련 체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광득(1997). 여가와 현대사회. 서울 : 백산출판사
- 김도희(1999).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도희 · 손대현(2000). 중년기 레저활동과 생활만족의 관계분석. 한국관광학회지, 관광학 연구23(2), 268.
- 김동배, 권중돈(1999). 인간행동이론과 사회복지실천. 서울 : 학지사.
- 김무곤(2003). NQ로 살아라. 서울: 김영사.
- 김명자(1994).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의 향유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노인을 중심으로.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명조(1990).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생활의 실천방안. 부산사대논문집, 1-16.
- 김병천(1992). 청소년의 여가와 비행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김선희(1997). 지방자치단체의 여가,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운영체계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영석(1991). 청소년의 방송문화 및 여가생활 실태. MBC 청소년 백서, 서울 : 문화방송, 169.
- 김정근(1998). 여가태도, 여가활동이 여가만족에 미치는 경향-레깅의 연구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관광학회, 관광학연구21(2), 223.
- 김제한(1998). 발달심리학. 서울 : 양서원.
- 김진탁 · 김원인(1997). 현대 여가 · 위락론. 서울 : 학문사
- 김창남(1998). 대중문화의 이해, pp 161-187. 서울: 한울
- 김학천(1993). 청소년의 영상매체 수용실태와 활용방안. 청소년과 방송. 한국 언론연구원.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정체성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 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김형철(1998). 혼수상태. 21C교육협의회.
- 김혜진(1997). 독일 문화교육의 내용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 김홍철·송강영·김경식·구창모(1996).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여가태도의 관계, 한국 스포츠 사회학회지제6호, 124.
- 민준기(1993). 청소년 복지론, 한국청소년개발원, 11.
- 박갑도(1992). 청소년 건정 육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연구. 미간행석사학위 논문,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12.
- 박상욱(1998). 청소년의 여가활동참가와 참가유형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 박소영(2001). 청소년기 여가활동과 자아정체성과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 박아청(1990). 아이덴티티의 세계. 서울 : 교육과학사.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성의 타당도 연구. 교육심리연구 10(3), 교육심리학회 67-84.
-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세계Ⅱ.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박아청(1998). 자기의 탐색. 서울 : 교육과학사.
- 박희경 외 11인(1998). 현대 청년심리학. 서울 : 학문사.
-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1997).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심한기(2003). 대한민국 청소년 문화축제 죽었니, 살았니?. 부산교육305호, 403-413.
- 서봉연(1979). 한국과 서독 청소년의 Identity 발달에 관한 비교연구. 사회연구2집, 113-138
- 서봉연(1988). 발달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06.
- 서봉연(1975). 자아정체성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서태양·차석빈(1999). 여가론. 서울: 대왕사.
- 송병순(1998). 현대사회와 교육. 서울 : 양서원.
- 신은숙(1999). 청소년의 특성과 이해. 청소년지도학(오치선 외 19인), 서울:학지사.
- 안재정 역(1983). 사춘기·청소년기. 기독교청소년선도회, 4.
- 연문희(1996). 성숙한 부모 성숙한 교사. 서울 : 양서원, 192.
- 오세진 외 11인(1999).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오춘희(1998). 청소년 여행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5.
- 이명숙(1997).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기능강화. 한국청소년개발원, 32.
- 이상현(1997). 청소년 비행학. 박영사, 5.
- 이춘재 외 8인 공저(1988). 청년심리학.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이인정, 최해경(199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 나남출판.
- 이춘재(1995). 청년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335.
- 이혜경(2000). 중등학교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자아개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임병근(1999). 청소년복지정책과 공적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13.
- 임영식(1999). 청소년발달의 이론적 접근. 청소년학 총론, 한국청소년학회.
- 임영식 · 한상철(2000). 청소년심리의 이해. 서울 : 학문사.
- 임창재(2001). 정신위생심리. 서울 : 형설출판사.
- 장휘숙(1999). 청년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정옥분(1998). 청년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청소년문화론(1993). 한국청소년개발원.
- 정용각(2000). 여가행동 및 레크리에이션. PUFs 부산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정경훈(2001). 문화이벤트 연출론. 서울 : 대왕사.
- 정대연(1992). 사회통계학. 서울 : 백산서당
- 조운숙(1998). 효율적인 문화교육방법.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대학원.
- 조학래(1995). 자원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도덕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전선영(1995). 청소년단체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실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전신현(1996). 청소년의 삶의 질에 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제25호 겨울, 71.
- 조한혜정(1996).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 지선주(2000). 청소년의 또래 관계와 여가활동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채서일 (1995). 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서울 : 학현사.

- 최원기(2000). 청소년의 바람직한 여가생활 지도방안. 청소년소식 12월호.
- 최정훈외(1986). 고교생과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수준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
- 최창석(2000).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가와 자아효능감 및 자아성취감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 최충욱(1998). 청소년 교육론. 서울 : 양서원.
- 통계청(1996). 사회통계조사보고서 - 문화와 여가 · 교육부문
- 한국의 청소년 지표(1997). 한국청소년 개발원, 139.
- 한상철 · 조아미 · 박성철(1997). 청소년심리학. 서울 : 양서원.
- 함중환(1992). 청소년학원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4.
- 홍봉선 · 남미애(2000). 청소년복지론. 서울 : 양서원.
- 홍석영(1997). 고등학교 문화교육의 수업실태와 바람직한 수업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황주아(2000).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 Adrian C. N, J. H. David and A. O. Susan (2000). The Importance of Music to Adolesc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0, 255—272.
- Bandura, A. (1969). *Principles of Behavior Modific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Bandura, A. (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 Bandura, A. (1995). *Self-efficacy in Changing Societies*.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nedict, R. (1938).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cultural conditioning. *Psychiatry*, 1, 161-167.
- Beth D. K and A. K. Douglas (2000). Leisure in the Identity Formation of Lesbian/ Gay Youth : Personal, but Not Social. *Leisure Sciences* 22, 215-232.

- Blow, p.(1967).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Vol. 22, 173.
- Bronfenbrenner, U. (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Bronfenbrenner, U. (1993). The Ecology of Cognitive Development; Research models and fugitive finding. In R. H. Wozinak & K. Fischer(Eds.). Scientific Enviornments. Hillsdale, NJ : Erlbaum.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Csikszentmihayli, M & R. Larson (1984). Being adolescent. New York : Baxic Books.
- Davis, S. F. & Palladino, J. H. (1997). Psychology (2n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Inc.
- Douvan, E, & Gold, M. (1966). Model patterns in American adolescence. In L.M. Hoffman(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2). N.Y : Russel Sage Foundation.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 W. Norton.
- Erikson, E. H. (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 Norton.
- Freud, A. (1958).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reud, S. (1920). A General Introduction to Psychoanalysis. New York : Boni and Liveright Publisherts.
- Garton A. F & C. Pratt (1987). Participation and Interest in Leisure Activities by Adolescent Schoolchildren. Journal of Adolescence 10, 341-351.
- Gilligan C. (1979). Woman's place in Man's Life Cycle. Harvard Review 49, 431-446.
- (1982). "In a different voice: Women's concepts of the Self and of Moralit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John R. K. (1985). Leisure Identities and Interactions. Leisure and Recreation

Studies 1, 148-150.

- G. Godbey (1995). *Soci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PA: Venture Publishing, Inc.
- Joseph J, Jr. Cronin & S. A. Taylor (1992). *Measuring Service Quality : A Re-examination & Extinction*. *Journal of Marketing* 6, 55-68.
- Kleiber, D. A., Larson, R. & Csikszentmihalyi, M., (1986). The experience of leisure in adolescen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Vol. 18, 2.
- Kane M. J. & E. Snyder (1989) *Sport Typing : The Social 'containment' of Women in Sport*. *Arena Review* 13, 77-96.
- Kohlberg, L. (1964). Development of moral character and moral ideology. In M. L.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1). N. Y: Russell Sage Foundation.
- Kubey R. & M. Csikszentmihalyi(1990) *Television and the Quality of Life*. Hillsdale, N . J : Lawrence Erlbaum.
- Kuhn, D., Ho, V., & Adams, C. (1979). Formal reasoning among pre- and late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0, 1129-1135.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Acelt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159-187.
- Marcia J. E. (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d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159-187.
- Marcia, J. E. (1987). The identity status approach to the study of ego identity development. In T. Honess & K. Yardley (Eds.). *Self and Identity: Perspectives Across The Lifespa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Marcia, J. E. (1991). Identity and self development. In R. M. Lerner, A. C. Petersen & J. Brooks-Gunn (Eds.), *Encyclopedia of Adolescence* (Vol. 1. 529-533), New York : Garland.
- Messner M. A. & D. F. Sabo (1990) *Sport, Men, and the Gender Order*. Champaign, IL : Human kinetics Books.
- Maslow, A. (1971). *The Farther Reachers of Human Nature*. New York : Viking Press.
- Maslow. A. H. (1954). *Motivation and Personality*. New York, Haper & Row.

- Newman, B.M&Newman, P.R.(1987).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4th ed, Chicago : The Dorsey Press.
- Newman, B.M&Newman, P.R.(1991). *Development through Life. A Psychosocial Approach* (5th ed), California : Brooks Cole Publishing Co. 336.
- Nielsen, L. (1991). *Adolescence. A Contemporary View* (2nd), Floridy :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 Piaget, J. (1964): *Cognitive Development in Children. The Piget papers*, in R.E. Ripple and V. N. Rockcastle(Eds.), *Piaget rediscovered: A report of the conference on cognitive studies and curriculum development*, Ithaca N.Y, school of education, Cornell University.
- Piaget, J. (1977). *The Developmental of Thought. Equilibration of cognitive structure*, New York : Viking.
- Ramsey, G. E (1967). *Problems of Youth*. Belmont. CA : Dickinson.
- Reidar S. & M. S. Diane (1998). *Involvement in and Perception of the Free Time Context for Adolescents in Youth Protection Institutions.*“ *Leisure studies* 17, 207-226.
- Rogers, C. R. (1974). *In retrospect. Forty-six years*. *American Psychologist*, 29, 115-123.
- Sebald, H. (1968). *Adolescence A Sociological Analysis*. N. Y : Appleton-Century Crofts.
- Sprinthall, N. A. & Collins, W. A. (1995). *Adolescent Psychology : A Developmental View* (3rd), N. Y : McGraw-Hill, Inc.
- Susan M. S , A. K. Douglas & L. C. Linda (1995). *Leisure and Identity Formation i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3), 245-263.
- Waterman A. S (1985). *Identity in adolescence : Processs and contents*. San Francisco : Jossey-bass.
- (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t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 Psychology* 18(3), 341-358.
- Waterman A. S.(1982). *Identity Development form Adolescence to Adulthood : An Extent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 Psychology 18(3), 341-342.

Webster's college dictionary(1995). Random House Inc, London, 19.

Zimring, F. E. (1982). The Changing Legal World of Adolescence. N. Y : Free Press.

<부록>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

I D				
-----	--	--	--	--

지 역				
-----	--	--	--	--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청소년 문화축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건전한 청소년 문화축제의 정착과 문화축제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발달이 사회공존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9조에 의하여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대한 사항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의 응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므로 제시된 응답요령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한 문장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할애하여 응답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금번 축제에 참가한 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04년 7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박사과정

지도교수 : 정 명 수

연구자 : 송 은 미

1. 다음 질문은 귀하가 평상시 생활에서 느끼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귀하의 솔직한 응답을 번호에 √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5 매우 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3 보통 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 나에게는 나를 특징지워 주는 독특한 면이 있다.	5	4	3	2	1
2. 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5	4	3	2	1
3. 경험하지 않았던 일이 닥쳐도 나는 두렵지 않다.	5	4	3	2	1
4. 나는 남들로부터 개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5	4	3	2	1
5. 나에게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다.	5	4	3	2	1
6. 일관된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면이 나에게는 부족하다.	5	4	3	2	1
7. 갑작스럽고 커다란 사회의 변화를 나 나름대로 해석할 수 있다.	5	4	3	2	1
8. 나의 미래상은 때에 따라 바뀐다.	5	4	3	2	1
9. 나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	5	4	3	2	1
10. 나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한 일에 대해 후회할 때가 많다.	5	4	3	2	1
11. 나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과 있게 되면 거북하다.	5	4	3	2	1
12. 나는 외부적인 변화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다.	5	4	3	2	1
13. 나는 장래에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다.	5	4	3	2	1
14. 내가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갖게 되건 관심이 없다.	5	4	3	2	1
15. 나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다.	5	4	3	2	1

1. 다음 질문은 귀하가 평상시 생활에서 느끼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알고자 합니다. 본 질문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니 귀하의 솔직한 응답을 번호에 √ 자로 표시해 주십시오.

	5 매우 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6. 어떤 모임에 처음 나가서 나 자신을 소개하는데 어렵다.	5	4	3	2	1
17. 내가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다면 하는 생각이 든다.	5	4	3	2	1
18. 나는 사람을 사귀는데 까다롭다.	5	4	3	2	1
19.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나도 할 수 있다.	5	4	3	2	1
20. 내게는 남다른 경험이 없다.	5	4	3	2	1
21.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선뜻 실행하지 못한다.	5	4	3	2	1
22. 나는 생활 속에서 겪는 사건들을 판단하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5	4	3	2	1
23.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이 많다.	5	4	3	2	1
24. 다른 사람들이 내게 관심을 가져준다.	5	4	3	2	1
25.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주위 상황보다는 나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5	4	3	2	1
26. 나에게서 평생을 바쳐 하고 싶은 일이 있다.	5	4	3	2	1
27.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같이 느껴진다.	5	4	3	2	1
28. 나에게서 나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다.	5	4	3	2	1

**II. 다음 질문은 청소년 축제에 참가하여 느끼시는 공존
지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되는 번호
에 √ 표를 해 주십시오.**

	5 매우 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3 보통 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 나는 가족, 친척 외에 지금의 내가 있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을 세 사람 이상 적을 수 있다	5	4	3	2	1
2.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흐뭇한 미소를 지어본 적이 있다.	5	4	3	2	1
3. 다른 사람이 내게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다.	5	4	3	2	1
4.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에게 적어도 1년에 한번은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고 있다.	5	4	3	2	1
5. 최근 1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활동에 참가한 적이 있다.	5	4	3	2	1
6. 학교 동료 외에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쯤 만나는 친구가 있다.	5	4	3	2	1
7. 나에게서는 공부와 관계없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안부전화를 걸어오는 친구가 있다.	5	4	3	2	1
8. 나에게서는 진심으로 잘되기를 바라는 친구가 있다.	5	4	3	2	1
9. 나에게서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을 때 다 털어놓고 상담할 사람이 있다.	5	4	3	2	1
10. 나에게서는 내가 위급할 때 내 가족을 부탁할 사람이 있다.	5	4	3	2	1
11. 나는 회식이나 모임으로 시간이 늦었을 때 다른 사람을 데려다 주거나 먼저 차를 타게 한다.	5	4	3	2	1
12. 나는 최근 한달 내에 학교의 동료나 후배를 진심으로 칭찬한 적이 있다.	5	4	3	2	1
13. 나는 최근 한 달 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도와줄게(요)”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	5	4	3	2	1
14. 친구들이나 학교의 동료와 후배들이 때때로 나에게 상담이나 도움을 요청하곤 한다.	5	4	3	2	1
15. 나는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 즉시 감사의 인사를 하는 편이다.	5	4	3	2	1

**II. 다음 질문은 청소년 축제에 참가하여 느끼시는 공
존지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의 해당되는
번호에 √ 표를 해 주십시오.**

	5 매우 그렇다	4 대체로 그렇다	3 보통 이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16.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접이나 선물을 받으면 어떤 형식의 로든 보답을 하는 편이다.	5	4	3	2	1
17. 나는 스스로 사람 복(인덕)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5	4	3	2	1
18. 나는 좋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데 기쁨을 느낀다.	5	4	3	2	1
19. 나에게는 학교나 전공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참가하고 있는 연구회나 공부모임이 있다.	5	4	3	2	1
20. 나는 스스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한 다.	5	4	3	2	1
21. 나는 휴대전화, 메신저, 이메일주소 세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5	4	3	2	1
22. 나는 한 가지 외국어를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만큼 할 수 있다.	5	4	3	2	1
23. 나는 최근 일 년 사이에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편지나 이메일로 감 사의 뜻을 표시해본 적이 있다.	5	4	3	2	1
24. 나는 지난1년 사이에 집이나 다른 장소에 가족이나 친척 이 아닌 다른 사람을 초대 한 적이 있다	5	4	3	2	1
25. 나는 학교 동료 또는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을 때 먼저 계 산대로 나가는 편이다.	5	4	3	2	1
26. 나는 크리스마스나 연하장을 매년 빠지지 않고 보내는 편이다.	5	4	3	2	1

청소년 문화축제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

송 은 미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 육 학 과

(지도교수 정 명 수)

(초록)

본 연구는 2004년 여수 국제청소년축제에 참가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축제참여유무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력과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자의 표집방법은 무작위표본 추출법을 이용하여 문화축제참여자 250명과 비참여자 250명으로 총 500명을 표집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작성은 자기평가 기입법(self-administration)으로 작성, 회수하였으며, 이 가운데 421(84.2%)부 만을 유효 표본으로 얻었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1 package 통계프로그램과 LISREL 8.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구성 타당성 검증은 탐색요인분석을 실시한 후 LISREL을 이용하여 확인요인분석으로 설문의 타당도를 확인하였으며,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또한 축제참여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고, 청소년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감정적 견해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과 자료 분석 방법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설 검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축제참여 유무에 따른 자아정체성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주체성, 자기수용, 미래확신, 주도성, 친밀성요인에서는 축제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하여 높은 자아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지향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축제참여 유무에 따른 사회공존지수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결과, 네트워크 자본, 네트워크 유지, 네트워크 배려, 네트워크 자질, 네트워크 확장 요인에서는 축제참여자가 비참여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사회공존지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인드 요인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청소년의 축제참여에 따른 감정적 견해(자기개발, 자신감, 긴장완화, 의무감)는 자아정체성(주

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되는 청소년들의 감정적 견해(타인의식, 일원감, 독립감)는 자아정체성(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들의 문화축제참여는 청소년들의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문화축제참여를 통한 감정적 견해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시 갖게 되는 감정적 견해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자간의 복잡 다양한 상호작용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youth cultural festival on development of self-identity and social network quotient

Song, Eun-Mi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Jung, Myeong-Soo)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s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 identity and the network quotient and the influence of the emotional outlooks based on the participation in the festivals and the emotional outlooks produced by the interaction with others on the development of the self identity with the young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2004 Yeosu International Youth Festival as the subjects.

The sampling of the subjects of the investigation was conducted by using Random Sampling, with the 500 people in all, a group of 250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cultural festival and the other group of 250 people who did not participate in it, as the subjects. The questionnaires were written and collected by the method of self-administration, and 421 questionnaires(84.2%) were accepted as valid samples.

The materials were analyzed by using the statistical program of SPSS WIN 12.0.1 package and LISEL 8.30. In terms of the verification of the construct validity, the validity of the questionnaires were confirmed after the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by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using LISREL and the reliability was verified by Cronbaqch's a. And T-test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the self identity and the social network quotient on the basis of the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and the Convariance Structure Analysis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emotional outlooks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young people in the festival and the emotional outlooks produced by the interaction with others on the self identity and the social network quotient.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as a result of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es for the realization of the purpose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se ways of the study and analysis of the materials.

First,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self identity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have shown that the participants have the higher self identity than the non-participants in terms of subjectivity, self acceptance, future certainty, initiative and intimacy factor. However, they have shown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goal-oriented factors.

Second, the finding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the social network quotient based on the participation and non-participation in the festival have shown that the participants of the festival have significantly higher social network quotient than non-participants in the factors of network capital, network maintenance, network consideration, network quality, and network expansion. However, they have shown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actor of network mind.

Third, it has been shown that the emotional outlooks(self-development, self-confidence, relaxation of tensions, sense of obligation)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the young people in the festival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self identity(subjectivity, self acceptance, future certainty, goal-oriented factor, initiative, and intimacy).

Fourth, it has been shown that the emotional outlooks of the young people in the interaction with others(other-consciousness, belongingness, and independenc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self identity(subjectivity, self acceptance, future certainty, goal-orientedness, initiative, and intimacy).

Putting these findings together, it is shown that the participation of the adolescents in cultural festivals has a positive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their self-identity, and, in particular, it is also shown that the emotional outlooks produced by the participation in cultural festivals and the emotional outlooks obtained through the interaction with other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self-identity of the adolescents.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study those programs producing no oppositions and the methods of particip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elf-identity of the adolesce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natural programs and incentives to smooth the complex and diverse interactions among the participants.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체 육	학 번	20027523	과 정	박사
성 명	한글: 송 은 미 한문: 宋 恩 美 영문: Song Eun Mi				
주 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각화글로벌 102동 407호				
연락처	E-MAIL : 4022sem@hanmail.net				
논문 제목	한글: 청소년 문화축제 참여가 자아정체성과 사회공존지수에 미치는 영향 영문: The effect of participation in youth cultural festival on development of self-identity and social network quotient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조건부 동의() 반대()

2005년 6 월 일

저작자 : 송 은 미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